



주간 통일정세

2012-0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자강도당 책임비서에 류영섭 임명(2/13, 조선중앙방송)**
 - 당 책임비서에 임명된 신입 류영섭 책임비서는 200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체신상으로 활동했고 당 중앙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도 맡고 있음.
 - 조선중앙방송은 북한의자강도 만포시에서 240가구의 살림집이 새로 건설되었으며 전날 '새집들이'행사가 있었다며 "류영섭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군인건설자들, 시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새 살림집에 이사하는 주민을 축하해줬다"고 밝힘.

- **北 백두산밀영서 '김정은 결사옹위' 결의대회(2/13,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2월16일, 광명성절)을 맞아 백두산 밀영의 김 위원장 고향집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전함.
 - '백두산 밀영 결의대회'는 당·정·군 인사들이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온 연례행사인데 올해는 김 위원장을 추도하고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 대회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인민군 총참모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최룡해 당 비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용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1비서와 당, 무력기관, 근로단체 간부, 장병, 근로자들이 참여함.

- **北 고영희 '평양어머님'호칭...본격 이상화(종합)(2/13,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앞두고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의 서사시 '영원한 선군의 태양 김정일 동지'를 게재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를 '평양어머님'으로 호칭했는데 조선중앙TV가 지난 1월8일 김 부위원장을 이상화하는 기록영화를 방영하면서 고영희를 '어머님' 라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평양어머님'이라는 호칭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처음 나온 것임.

- **北체신상에 고위간부 2세 심철호 임명(2/14,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매체들은 지난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70회 생일을 기념하는 우표전시회 개막 소식을 전하면서 김기남 당 비서와 심철



- 호 체신상이 행사에 참가했다고 소개함.
- 심철호는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심창완(1981년 사망) 전 사회안전부 정치국장의 아들로, 당·군·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전·현직 고위간부 자제 중 한 명으로 꼽혀왔음.
- **北, 장성택·김경희에 김정일훈장…김옥도 첫 거명(2/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2월 16일)에 즈음해 지난 9일 정령을 통해 각계 인사 132명에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키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북한은 3일 김 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김정일훈장을 제정한다고 발표했으며, 제정 후 처음 수여되는 김정일훈장을 받는 이들에게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 부장, 김 위원장의 넷째 부인인 김옥을 비롯해 당·정·군의 핵심 인사가 망라돼 있음.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 당비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군 총정치국 부국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김명국·박재경·현철해 대장 등도 명단에 포함됨.
- **北, 김정일 동상 공개…가마 형상(종합)(2/1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가 나란히 말을 탄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이 만수대창작사 광장에 건립됐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4일 보도함.
 - 김 위원장 동상은 전국적으로 2~3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개 장소에 그의 동상이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제막식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최영림 내각총리,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당 비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주수용 만수대창작사 사장 등이 참석했지만 김정은 부위원장은 불참함.
- **北, 김일성 이어 김정일에도 '대원수' 칭호(2/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4일 공동 명의의 '결정'을 통해 "조국과 혁명 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 칭호를 수여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이로써 1992년 원수에 올랐던 김 위원장은 김 주석과 함께 국가의 최고 명예계급 칭호를 갖게 됐으며 김 주석은 1992년 4월13일 80회 생일을 앞두고 당 중앙위 및 중앙군사위, 국방위, 중앙인민위의 공동 명의로 '



대원수'에 추대됐음.

● **김정일 생일 하루 전 北 '광명성' 이상화 고조(2/15, 노동신문;우리민족끼리)**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영원한 광명성'이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김 위원장을 '광명성'으로 지칭하며 "광명성은 투사들이 예언한 것처럼 백두산이 낳은 걸출한 민족의 영웅"이라며 "광명성은 휘황한 빛발로 김일성조선의 미래를 비추준다. 두분의 태양이 축복해주는 조선은 반드시 흥한다"고 김 위원장을 김일성 주석과 같은 태양 반열에 올림.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백두산의 216봉우리'라는 글에서 김 위원장이 태어난 백두산의 봉우리 숫자를 216개라며 김 위원장의 생일(2·16)과 연결 지었으며 "예로부터 사람들은 백두산에서 큰 장수가 난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주체31(1942)년 2월16일 역사의 그날 천출 위인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라며 "백두산 216 봉우리는 천세만세 불세출의 선군영장의 위인상을 길이 전해갈 것"이라고 주장함.
- 김 부위원장이 15일 최고사령관 명령을 통해 장성 23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며 북한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대남 강경파로 꼽히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대장으로 승진하고 김 부위원장이 새해 첫날 시찰한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의 사단장인 김송철이 상장에 오른 것은 김 위원장 유훈인 선군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 박도춘 당 비서가 대장 칭호를 받고,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과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이 각각 상장에 오름으로써 국방위 위원이 모두 상장 이상의 군 계급장을 달았으며 이번 승진 인사로 북한에서 차수는 7명, 대장은 27명으로 각각 늘었음.

● **김정일 생일 北보고대회... '장군님' 찬양 일색(2/15, 연합뉴스)**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2월16일)을 맞아 15일 연 중앙 보고대회를 열었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대회보고에서 "정치·사상강국으로 온누리에 떨쳐주신 김정일 동지는 희세의 정치가"라고 업적을 찬양했고, 김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현지도 등을 거론하며 "우리 인민을 감동시키고 있고 절대적인 신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띄웠음.
- 이날 대회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영림 내각총리,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 당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성택을 비롯해 지난 14일 각각 대장과 상장으로 진급한 박도춘, 주규창 등은 군복을 입고 나타나 시선을 끌었고 김경희의 경우 지난 1월1일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이후 40여일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됨.



- **北교육위원장에 김승두 리과대학 학장(2/16,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아 쓴 글을 소개하였는데 북한의 교육수장인 내각 교육위원장에 김승두 리과대학 학장이 새로 임명된 것으로 16일 확인되었으며 전임 김용진 교육위원장은 지난달 내각 부총리로 승진됨.

- **北, 금수산기념궁전→금수산태양궁전 개칭(2/16, 조선중앙TV)**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인 16일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개칭했으며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함에 관한 '공동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힘.

- **北재정상에 최광진 부상 승진임명 확인(종합)(2/16, 노동신문)**
 - 1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아 전날 평양 빙상관에서 제21차 백두산상국제피겨축전이 개막했다며 "빙상취거(피겨)협회 위원장인 최광진 재정상이 참가했다"고 소개했으며 전임 박수길 재정상은 내각 부총리를 겸해왔는데 지난해 6월1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사업을 시작한 지 47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한 뒤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고 있음.

- **北, 김정일 생일 맞아 약식 열병행사(2/16, 조선중앙TV)**
 - 북한은 16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 기념 소규모 열병행사를 진행했는데 김 위원장의 생일에 열병행사를 개최한 것은 처음임.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경부터 50분 가량 궁전 광장에서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및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공동결정'을 공표하는 행사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육·해·공군의 예식을 생중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개칭을 공표한 뒤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재경 대장 등 군(軍) 수뇌부는 일제히 주석단에서 내려와 김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으며 이어 열린 약식 열병식에서는 육·해·공군과 노동적위대의 사열에 이어 방사포와 미사일, 장갑차 등 군사장비와 무기들도 등장함.

- **김정일 70회 생일 맞은 北…주인공은 김정은(2/16, 연합뉴스)**
 - 16일 생중계된 인민군의 예식행사에서는 수뇌부가 이례적으로 김 부위원장 앞에 일제히 늘어서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 부위원장을 옹위하고 '삼대세습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음.



-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최근 차수 계급장을 단 김정각 군 정치국 제1부국장, 김원홍 군 총정치국 부국장, 박재경 대장 등 주석단에 있던 군수뇌부는 이례적으로 광장으로 내려가 김 부위원장 앞에 도열해 김정일 위원장에 의해 핵보유국이 된 점을 강조하며 '선군정치'를 계승해나가겠다고 다짐함.
- **北김격식, 김정일 생일행사에 등장(2/17, 조선중앙TV)**
 -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김격식 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조선중앙TV는 16일 당·정·군 각계 인사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김위원장의 초상화인 '태양상'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의식을 전했는데 김대장으로 추정되는 장성이 거수경례를 하는 장면이 포착됨.
- **北, 김정일 배지 새로 제작해 보급(2/17, 조선신보)**
 -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인 '태양상'을 형상화한 배지(초상휘장)를 제작해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조선신보가 17일 보도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7일 '장군님 초상휘장 모신 평양시민'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을 맞은 평양에서 김정일 장군님의 태양상을 형상한 휘장을 가슴에 모신 시민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북한단신, 주러 北대사관서 연회 개최(2/17,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아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이 지난 14일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 연회에는 이고르 마르쿨로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과 상원 및 하원의원 등이 참석
- **김정은, 김정일 생일 기념음악회 관람(2/17, 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기념해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대공연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전함.
 - 공연 관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정·군 고위간부와 사회단체, 성, 과학, 교육 부문 등의 관계자, 장병,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북한 주재 외교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함께함.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아 열린 은하수 광명성절 음악회 '태양을 따르는 마음'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전했다.
 -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김기남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을 비롯한 당·정·군 고위간부 등이 참석

- **'北거부' 차철마, 만수대의사당 총장 재직(2/19, 연합뉴스;조선중앙TV)**
 - 북한의 최고 거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차철마가 만수대의사당 총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19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결과 조선중앙TV는 전날 '제16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축전장을 찾은 차철마를 인터뷰하며 '만수대의사당 총장'이라는 자막을 함께 내보냈음.
 - 차 총장은 "우리 만수대의사당 전체 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너무나도 뜻밖에 잃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날이 커만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운 마음을 안고 정성껏 피운 1천700여 상의 김정일화를 전시대에 전시했다"고 말했음.

- **北박재경 軍선전선동 총책으로 복귀(2/19, 연합뉴스)**
 - 북한 박재경 대장이 군의 선전선동 업무를 총괄하는 총정치국 선전선동 담당 부국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소식통은 19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 이상화에 앞장섰던 박재경 대장이 작년 말 총정치국 선전선동 담당 부국장으로 복귀했다"며 "김정은 체제에서 군대 내 이상화 작업을 총괄할 것"이라고 말했음.
 - 박재경 부국장은 1994년 9월 군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을 맡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음악정치'에 발맞춰 군 협주단, 군 공훈합창단 등을 조직하고 중대급 예술소조공연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김 위원장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등을 벌여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은 동향

- 2/15 김정일 위원장 생일 7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2.15 4.25문화회관에서 진행(2.15, 중통·중·평방·중앙TV)
- 김정은, 김영남(보고), 최영림, 리영호, 김영춘, 전병호, 이용무, 오극렬, 장성택(軍服), 김정각, 우동측, 김국태, 김경희, 김기남(사회),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등 참석
- 김위원장의 '핵보유국 전변·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 건설·南北공동선언 마련, 영도의 계승문제 해결' 등生前업적 찬양 및 '김정은 부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과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조국통일, 주체혁명위업 계승 완성을 위한 일심단결' 강조
- 2/16 김정일 70회 생일 즈음 '김정일에 송고한 경의표시 행사',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진행(2.16, 중·평방·중통)
-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리영호, 김경희,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장성택, 김정각,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김창섭 등 참석
- 2/16 금수산기념궁전→ 금수산태양궁전 命名 공동결정(2.15) 공표 및 육·해·공군 장병들의 김일성·김정일 대원수에 경의 표시와 김정은 최고사령관에게 충성 맹세 예식행사(열병행진 등),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진행(2.16, 중·평방·중통)
- 김정은, 김영남(금수산태양궁전 命名 공동결정 공표), 최영림, 리영호(연설), 김경희, 김영춘, 김정각, 김기남(사회) 등 참석
- 전군이 최고사령관동지를 한 목숨 다 바쳐 결사옹위 하는 김정은의 제1친위대·제1군위대가 되겠으며,
- 우리 대에 기어미 미제와 남조선 괴뢰역적 패당들을 총대로 쓸어버리고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 말겠음(리영호)
- 2/17 김정일 70회 생일 기념대공연(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2.16 평양에서 진행 및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리영호 등 관람(2.17, 중통·중방)
- 2/18 김정은 부위원장, 은하수 광명성절음악회 '태양을 따르는 마음' 관람(2.18, 중통·중방)
- 최영림, 이영호,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장성택, 김정각, 우동측 등 함께 관람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위원장 70회 생일'(2.16, 광명성절) 관련 對内外 動向
- '백두밀영결의대회', 2.12 리영호·김기남·최태복·김정각·박도춘·최룡해 등 참석下 진행(2.12, 중통)
- 圖書 '전설적위인 김정일동지' 全 5권 중 제5권(절세의 애국자) 출판(2.13, 중통)
- 백두산상 국제취거축전 개막식, 2.15 김영남·최룡해·박명철(체육상) 등 참가下 빙상관에서 진행(2.15, 중통)
- 北, 金위원장 연설·담화 등 104건의 문헌을 수록한 '김정일 전집 제 1권' 출판(2.15, 중통)
- 北, 화첩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영도자' 발행(2.15, 중통)
- 얼음조각축전(2.12~), 삼지연군 백두산밀영지구에서 성황리에 진행中(2.15, 평방)
- 在日조선인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2.13~14 평양대극장에서 진행(2.15, 중통)

나. 경제

● 북한, 기술관료 등 1천명 중국 파견<日紙>(2/15, 도쿄신문)

- 북한이 김정은 신체제 이후 경제와 무역 분야의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 등 약 1천 명을 중국에 파견했다고 도쿄신문이 15일 보도
- 복수의 북한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1월 말 이후 경제 무역 부문의 중견간부와 기술관료 등 1천 명을 중국의 북동부와 남동부의 도시에 있는 민간기업과 공장 등을 시찰하도록 파견했으며 10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나눠 중국 북동부의 선양과 다롄, 옌지 등 주요 도시와 남동부의 상하이에 있는 민간 기업과 공장 등을 시찰하도록 하여 파견자들에게 중국 현지의 경제 무역 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도록 함.

● 北, 라선특구 4~6호 부두 50년 사용권 中에 넘겨(2/15, 연합뉴스)

- 중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북한 라선특구의 4, 5, 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라선특구 내에 비행장과 화력발전소를 지어주고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에서 라선특구까지 55km 구간의 철도 건설을 해주기로 함.
- 15일 베이징(北京)과 서울의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양국이 작년 말 동북 3성과 라선특구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실제 투자금 30억 달러 규모의 라선특구 기반시설 건설 계약을 함.

● 자동차로 북한여행 5월 재개 전망(2/15, 중국신문사)

-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자가용 여행이 오는 5월 재개될 전망이라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5일 보도



- 중국청년여행사 장하오(江浩) 사장은 인터뷰에서 "겨울철에 기온 급강하로 도로가 얼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데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등의 이유로 자동차 여행이 중단됐다"며 "선양, 톈진, 광둥 등에서 참가 의향을 보이고 있고 5월 1일 노동절 연휴가 절정기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 차량 60여대 정도 예약이 있지만 5월에만 600여 대가 북한 자동차 여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 **중국산 식량 유입 소문에 北쌀값 폭락(2/15, 좋은벗들)**

- 북한에 중국산 식량이 대량으로 유입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쌀값 등 물가가 폭락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15일 전함.
- '오늘의 북한소식'(442호)에서 함경북도 청진에서는 지난해 12월 1kg에 4천400원 하던 쌀값이 1월18일께 3천500원으로 떨어졌고 20일께는 3천 원대로 떨어졌다고 밝혔으며 특히 2월 들어서는 2천700원까지 떨어져 4개월 만에 고공행진을 멈췄으며, 물가하락 현상은 식품뿐 아니라 공산품, 건설 자재, 전자제품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 OECD서 4천300만불 빌려…절반 상환(2/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 7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약 4천300만 달러를 빌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갚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
- 에르날도 드 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국 연구원은 "북한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620만 달러를 OECD에서 빌렸으며 OECD가 최근 7년 동안 공적개발원조(ODA)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한 대출금은 4천315만 달러이고 이 중 북한이 되갚은 금액은 2천233만 달러"이며 "최근 대출은 2010년 쿠웨이트가 빌려준 626만달러로 북한은 이 중 364만 달러를 OECD 산하의 국제개발기금(OFIG)에 갚았다"고 전함.

다. 군사

● **北 "서해서 사격훈련 땀 무자비한 대응타격"(종합)(2/19,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서해 5도 일대에서 20일 실시예정인 한미군사훈련과 관련, "군사적 도발이 시작되면 무자비한 대응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해당지역 민간인에게 미리 안전지대로 대피토록 알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이날 공개통고장을 통해 "조선 서해 우리측 영해수역은 우리의 당당한 자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라며 "일단 우리의 해상경계선을 넘어 이 수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 시작되고 우리 영해에서 단 한개의 수주(水柱, 물기둥)가 감시되면 그 즉시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대응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했음.



- **軍, 내일 서북도서서 계획대로 해상사격훈련(2/19, 연합뉴스)**
 - 해병대는 오는 20일 오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 백령도와 연평도의 해병부대는 20일 오전 K-9 자주포와 20mm 별전포, 81mm 박격포 등을 동원해 해상 사격훈련을 할 예정이다.
 - 군 당국은 이날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훈련 일정을 통보했으며 북한군은 우리 군에 전통문을 보내 "연평도 불바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 사회·문화

- **北, 김정일 70회 생일 기념주화 발행(2/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70회 생일 기념주화를 발행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했다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9일 '정령'을 통해 ▲기념주화는 금화와 은화로 발행 ▲기념주화의 그림틀이와 규격, 조성 승인 ▲정령 집행을 위한 실무대책 수립 등 3가지를 결정함.
 - 순금으로 제작되는 금화의 경우 앞면 중심에는 야전복을 입은 김 위원장의 '태양상'을 배치하고 그 둘레를 70개의 점으로 형성하며 윗부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아랫부분에는 '1942 70돐 2012'라는 글자를 새기고 그 양옆에 각각 세 송이의 목란꽃을 장식함.
- **北남성 알코올섭취·흡연을 1·2위(2/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남성의 알코올 섭취율과 흡연율이 44%와 53%를 기록해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1, 2위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전함.
- **北장애인보호연맹, 세계농아인연맹과 협력 MOU(2/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조선장애인보호연맹이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세계농아인연맹(WFD)과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전함.
- **북한서 밤 수출 10년 넘게 금지된 사연(2/14,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3일 오후 5시45분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앞두고 연일 김 위원장의 '위대성'과 '인민성'을 선전하는 북한 매체가 최근 평양시내 군밤 매대에 공급되는 밤에 깃든 수출 중단 등의 사연을 공개했는데, '밤 수출금지 조치란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우리 인민은 수도(평양)의 거리에 넘치는 구수한 군밤 향기에서도 아버지 장군님(김정일)의 다심(多心)한 사랑을 눈물겹게 받아 안고 있다"며 군밤매대와 관련된 김 위원장의 일화를 소개함.



- **北에도 휴대폰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장(2/14, 조선신보)**
 - 북한에도 휴대전화로 손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첨단 길안내(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도입되었는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4일 북한의 전자공업성 산하 전자현미경연구소가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쓰이는 '손전화기(휴대전화) 전용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며 "평양시 임의의 장소를 검색해 신속하게 위치를 찾아가도록 만든 도로안내프로그램이 인기"라고 보도함.

- **평양서도 에스프레소·카페라떼 즐긴다(2/15, 노스코리안 이코노미워치)**
 - 북한 경제를 소개하는 인터넷 전문사이트 '노스코리안 이코노미워치(North Korean Economy Watch)'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 옆 중앙역 사박물관 안에 지난해 10월 말 문을 연 '비엔나 커피숍'의 인테리어와 차잔, 와인 등 내부 모습이 담긴 사진 8장을 소개함.

- **평양서 5월에 첫 노르웨이 예술제(2/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노르웨이의 유명 예술인들이 5월 평양에서 평화 기원 노르웨이 예술제를 열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노르웨이 예술가 모르텐 트라비크(Morten Traavik)씨는 이날 "북한과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평화를 이루기 바란다"며 "오는 5월 노르웨이의 음악가, 미술가, 연기자 등 15명과 함께 방북해 첫 노르웨이 예술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힘.

- **특별선물 수송 北헬기 추락...상업상 등 5명 사망(2/16, 데일리NK)**
 -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앞두고 섬주민용 선물을 싣고가던 북한의 헬리콥터가 추락해 김봉철 상업상 등 5명이 사망했다고 대북매체인 데일리NK가 16일 보도
 - 김 위원장 생일(2·16)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특별선물을 싣고 평안북도 철산군에 속한 서해 수운도로 향하던 헬리콥터가 착륙 도중 바위에 부딪혀 추락해 김 상업상, 평안북도 상업국장, 내각지도원 등 5명이 사망함.

- **UNHCR, 中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우려 표명(2/17, 연합뉴스)**
 -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가 북송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들에 대해 안전 보장이 확인될 때까지 강제 송환을 유보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음.
 - 최근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 24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들 가운데 10명은 북한인권단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음.
 - UNHCR은 17일 "UNHCR은 북중 접경지대에 접근할 수 없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당국에 관심을 촉구해왔다"고 전제한 뒤 "이번 건에 대해서는



UNHCR은 중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탈북자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가 적절히 마련될 때까지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우선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 **정명훈, 19일 北과 남북합동공연 논의(2/17, 연합뉴스)**

-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오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관계자와 만나 남북합동공연 등을 논의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 관계자는 17일 "정 감독의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했다"며 "정 감독은 남북합동공연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 조선민족음악연구소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정은 타임지 표지인물 장식(2/18,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표지인물로 실렸으며, 타임은 27일자 최신호에서 '핵 국가 북한의 검증받지 않은 지도자 김정은, 그 기괴한 세계란 제목으로 김정은의 초상화를 표지에 싣고 '김정은을 만나다'란 기사를 통해 출생과 성장기, 취미, 스위스 학창시절을 소개했다.
- 타임은 또 조총련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이 나이는 어리지만 매우 영리하고 듄직해 북한 국적의 재일 한인사회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 이와 함께 북한의 권력층 입장에서 볼 때 김정은은 뛰어난 지도자라기 보다는 체제 붕괴와 공멸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덧붙였다.

● **북한인권단체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하라"(2/18, 연합뉴스)**

-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등 20개 북한 인권 관련 단체 회원 100여명은 18일 오후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외교부, 中에 탈북자 관련 국제협약 준수 촉구(종합)(2/19, 연합뉴스)**

- 외교통상부가 19일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 복송 우려와 관련 중국측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 중국 정부와의 양자접촉을 통한 탈북자 문제 해결에 한계를 느낀 정부가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이어서 주목됨.



2. 대외정세

가. 일반

- **핵의혹 서방 제재에 北-이란 '밀착모드'(2/13,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평화적 핵활동을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로 간주하는 이란과 그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동맹국까지 동원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 어느 쪽이 정의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이란을 편을 들었으며 우리민족끼리는 8일 남한의 대이란 제재 동참에 대해서도 "자주성도 자존심도 없다"고 비난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7일 이란의 이슬람 혁명 33주년을 맞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좋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리라고 확신한다"고 격려를 전함.
 -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취임에 축전을 보냈고, 이란 일간지 '이란뉴스'는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노선'을 설명한 작품을 김 위원장 사진과 함께 소개하기도 했음.
- **북미 3차 대화 23일 베이징 개최(종합2보)(2/14, 연합뉴스)**
 - 미국과 북한은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3차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 북한 대표단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대화 재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마이크 해머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 대행은 이날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런 종류의 대화는 한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협의를 요구한다"면서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과 유엔(UN) 결의안 이행 등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함.
- **러 대통령, 김정일 생일 맞아 김정은에 축전(2/16, 평양방송)**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고 "러시아는 김정일 각하가 두 나라 사이의 선린관계 발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나는 오랜 친선과 호상 존중의 전통에 기초하는 러-북 협조가 조선반도와 아시아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평양방송이 16일 전했다.
- **北주재 中대사 '김정일 추모글' 발표(2/17, 조선중앙통신)**
 -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아 그를 추모하는 글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함.



● **日 조총련 간부 등 120명 북한 방문(2/17, NHK)**

- 고(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아 재일 조선총련의 간부 등 120명이 현금을 갖고 북한으로 출국했다고 NHK방송이 16일 보도함.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2.15)】 韓美행정협정을 '미군범죄를 비호조장하는 유례없는 불평등 협정'이라고 주장하며 '南 집권세력의 사대매국·反北대결책동 타파 및 주한미군 철수투쟁' 선동(2.15,중통/치욕의 역사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나. 6자회담(북핵)

● **북, 핵실험·미사일발사 가능상태 유지(2/17, 연합뉴스)**

-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를 통해 "북한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추가적인 준비만 하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당국자는 "그러나 핵실험과 미사일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특별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북미회담 금주 재개..한반도 대화국면으로(2/19, 연합뉴스)**

-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차 북미 고위급 대화를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고 이에 연동해 미국이 영양(식량)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북미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난 3년간 동면상태에 빠졌던 6자회담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됨.
- 이번 주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후속 대화가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모멘텀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임.
- 이번 북미대화는 지난해 10월26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북미 대화 이후 4개월 만에 열리는 후속 회담 성격이지만 새로운 북한 지도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기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음.

3. 대남정세

● **北 대화하려면 '공개질문'에 답하라(2/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대화가 재



- 개되려면 4월 중순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주제넘은 망발"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이날 '제 처지를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이 이명박 정부와 무조건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체제안착'이 되지 않아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또다시 우리를 걸고 들었다"며 "우리의 존엄까지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은 지난 2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이름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태도를 사과하고 6·15선언을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는 9개항의 대남 '공개질문장'을 발표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억지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함.
- **정부, 북측에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종합)(2/14, 연합뉴스)**
 - 정부는 14일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했으며,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고 오는 20일 개성이나 문산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강원도, 지자체 차원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2/14, 연합뉴스)**
 - 강원도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즉시 시행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으며, 정부가 2010년 5.24 남북교역 및 협력사업 중단 조치를 계속 유지하면,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말리리아 공동방역 사업과 북강원도 결핵약품 지원 사업 등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경기도와 인천시 등 접경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진행될 계획임.
 - **통일부, 평양지역 어린이의약품 지원 승인(2/14, 연합뉴스)**
 - 통일부는 14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신청한 어린이용 의료지원물자의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힘.
 - **北 "대화-대결은 양립할 수 없어"(2/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이명박 역적패당의 '대화' 타령이 요즘 더 극성스러워지고 있다"며 "대화를 운운할 그 어떤 체면도 없는 극악한 대결광신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화'와 '대결'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는 논평을 내고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대화의 기회가 마련될 때마다 대결소동으로 망쳐놓은 것도 바로 역적패당"이라며 "민족의 대국상 기간에 동족의 아픈 가슴에 칼질을 해댄 인간쓰레기"라고 혈투했음.
 - 또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서도 "대화를 떠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침전쟁연습과 대결소동에 전례없이 광분하고 있다"며 "(대화 제의에는)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판낸 책임을 모면하며 당면한 선거에서 지지표를 긁어모으려는 더러운 속심이 깔렸다"고 주장함.



-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접경지 전역으로 확대(2/14, 연합뉴스)**
 - 경기도가 2008년부터 추진한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이 접경지 전역으로 확대되어 인천시는 북측 접경지인 황해남도 지역에, 경기도는 개성지역에, 강원도는 북강원도 지역에 말라리아 방역물품을 전달하게 됨.
- **경기도 '일반인 통일교육' 4월 총선 이후로 연기(2/15, 연합뉴스)**
 - 경기도 북부청사는 3월부터 진행하려고 했던 '북한 바로알기 통감각(通感覺) 교육'을 선거철에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4·11 총선 이후에 실시한다고 15일 밝힘.
- **개성공단 설비반출 허용..남북실무회담 추진(2/15, 연합뉴스)**
 -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신규 설비 반출과 창고 개축 등을 허용하고 북한 근로자 공급을 늘리도록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상적 생산활동 보장을 위해 설비 반출과 창고 개축 등 대체건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신속적으로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산상봉 실무접촉' 제의에 北 이틀째 침묵(2/15, 연합뉴스)**
 -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 수령을 이틀째 거부하고 있는데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북측이 오늘 오전 현재까지 통지문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힘.
- **경평전·서울시향 평양공연 본격추진 될듯(종합)(2/15, 연합뉴스)**
 - 서울시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 구상 중인 남북 축구대회(경평전)와 서울시향의 평양공연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임.
- **北외무성 "공동선언 이행에 남북관계 달려"(2/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16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에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시아 평화가 달렸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연구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70회 생일을 맞아 발표한 '조선반도의 안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보장을 위한 불멸의 공헌'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남관계 개선에 대해 말하면서 북남공동선언들의 이행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두 선언을 부정하고 있는 남조선 현 당국자들에 대한 두둔으로 될 수 있는 비건설적인 태도"라고 밝혔으며 "(김정일 동지께서 열어놓은) 6·15통일시대는 북남관계가 개선되면 지역 전반의 분위기가 호전되며 나아가서 세계적인 완화의 분위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줬다"면서 북미 공동코뮬니케, 북일정상회담, 6자회담 개최 등을 지적하고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고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으로 온 겨레를 이끌어주는 자주, 평화통일사상이 있기에 조국통일



운동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덧붙임.

- '김정일 생일' 개성공단·판문점채널 이틀 휴무(2/16, 연합뉴스)
 - 개성공단과 판문점 적십자채널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에 따른 북측의 휴무로 이틀간 쉰다고 통일부가 16일 밝힘.
- 北, 남측 접촉제의 거듭 거부(2/19, 우리민족끼리)
 -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9일 "남조선 당국이 대화를 표방하면서 대화상대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동족 간의 대결을 격화시키는 것으로써 명백히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라고 비난했음.
 - 우리민족끼리는 '대화와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남조선 호전광들은 미국과 함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쌍용' 훈련을 벌이려 한다"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대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대화를 떠들지 말고 그에 배치되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타 (대남)

- 통일부의 남북 이산가족상봉문제 해결노력(상봉·교류 적극 지원 등)에 대해 "민심을 오도하기 위한 교활한 기만술책, 유치한 말장난"이라고 罵倒 및 '남북선언들 고수 및 5.24조치 철회' 持續 주장(2.13,중통·노동신문/모순되는 이산가족상봉 나발)
- 南 보수언론의 日 '산케이신문' 인용 보도 관련 '南 당국은 日 보수언론의 험담질을 그대로 되받아 언론에 공개하도록 했다'고 왜곡 비난(2.13,평방/대결 미치광이들의 발작증)
- 我軍의 '6.25지평리전투 기념 남한강 도하훈련' 실시 관련 '외세와 야합해 제2조선전쟁을 일으키려는 역적패당의 속심 불변, 전쟁훈련과 대화는 결코 양립될 수 없다'고 비난(2.15,우리민족끼리/도발적인 북침전쟁도하훈련이 보여주는 것)
- '南 당국이 한쪽으로는 이산가족상봉과 교류를 떠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5.24조치' 고수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진실로 상봉과 교류를 바란다면 국방위 정책국 공개질문장에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2.18,중통·민주조선/이산가족상봉을 운운하는 남조선 당국을 단죄)
-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 '공개통고장(2.19)', 韓美의 서해5도 일대 사격훈련時(2.20) "무자비한 대응타격이 개시될 것" 위협(2.19,중통·평방)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미 3차 고위급대화 23일 베이징 개최(종합)(2/14)

- 미국과 북한은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3차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음.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 북한 대표단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대화 재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양측은 이번 베이징 대화에서 지난해 12월 초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 동의 및 미국의 24만t 대북 영양지원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미는 지난해 7월 미국 뉴욕,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차례로 1,2차 고위급 회담을 갖고 북한의 우리농축축프로그램(UEP) 중단,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했었음. 양측은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베이징에서 제3차 고위급 대화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취소됐었음.
- 이번 제3차 북미 고위급 대화는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대화 재개에 대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새 지도부가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주목됨. 아울러 김 위원장 사망으로 함께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임.

● <북미 고위급대화 이번엔 하루?..'탐색전'될 듯>(2/15)

- 미국 국무부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3차 북미 고위급대화 일정을 하루(23일)로 발표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외교계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음. 북미는 그동안 회담을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했기 때문임. 앞서 1차 대화는 지난해 7월 28~29일 뉴욕에서, 2차 대화는 같은 해 10월 24~25일 제네바에서 각각 개최됐으며 국무부는 사전에 이런 일정을 공지했음. 이런 회담 일정은 양측의 입장차에 더해 언어 문제도 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회담장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음. 통역을 쓰기 때문에 회담이 하루면 종료되는 남북 비핵화 대화보다 북미 대화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임.
- 이런 사정에도 3차 대화가 국무부 발표대로 하루만에 끝난다면 이번 회



답의 성격을 '협상'보다는 '탐색'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외교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음. 이는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에 동의하고 미국은 24만톤의 대북 영양지원을 제공하는 '빅딜'이 지난해 12월 잠정 합의됐지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상황이 변한 만큼 다시 한 번 서로 입장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서임. 여기에는 이번 북미대화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외국과 하는 회담이라는 인식도 깔렸음.

- 이와는 반대로 북미가 의견을 상당히 근접시킨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 있음. 사실상 '도장' 찍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회담 시간을 길게 잡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임. 로버트 킹 북한인권대사가 미국측 북미대화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놓고도 북미가 대북 영양지원 문제에 대해 사전에 모종의 협의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일부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북한이 취해온 완강한 태도를 고려할 때 아직 북미간 입장차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임. 이런 맥락에서 외교가 일각에서는 회담이 하루 이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옴. 정부 소식통도 15일 "북미대화가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다"면서 "회담이 하루 안에 안 끝나면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음. 이렇게 되면 미국측 북미대화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일정도 당초 알려진 25일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미대화 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을 협의한 뒤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 제1부상도 이와 별도로 우 특별대표를 만나 북미회담 내용을 디브리핑(사후설명)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외교부는 북미대화와 관련된 내용을 미국측과 협의하기 위해 국장급 담당자를 베이징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美 일부러 6자회담 방해" 北 외무성 대변인(2/15)

-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5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평양에 지국을 둔 이타르타스 통신 특파원과 단독 인터뷰에서 6자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협상 과정을 재개해 동시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2005년 6자회담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는 "회담을 재개할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하고 이 방향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회담 재개 과정에 방해물이 생겨났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북조선에 공평하지 못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6자회담의 전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한 지칠 줄 모르



는 북한의 노력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달렸다고 지적했음.

-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시베리아 부랴티야 공화국에서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의 모든 합의사항을 이행할 생각이라며 "양국 간에 형성된 우호와 협력 관계의 역동적 발전은 우리 공화국의 변치 않는 의지"라고 역설했음.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을 방문해 부랴티야 공화국 수도 올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바 있음. 대변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이후 세 차례나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만들었다며 지금도 양국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말했음.

● <북미 고위급 대화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2/18)

-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3차 고위급대화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그 일정을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뉴욕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대화나 10월 제네바에서의 2차 대화는 각각 7월 28~29일 10월 24~25일 진행되는 것으로 사전에 발표됐음. 사소한 차이 같지만 살짝 비틀어 보면 미국의 의중을 엿볼 수 있음.
- 미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비핵화 사전조치를 북한이 확고하게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이 그동안 제기 해온 요구에 대해 북한의 답변만 듣겠다는 것이니만큼 굳이 회담일정을 길게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임. 현지 외교소식통은 18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이 없었다면 북한의 답변은 진작 확인됐을 것"이라면서 "이번 베이징 대화는 김 위원장 사망으로 연기된 일정이 속개되는 것인 만큼 그동안 미국의 요구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듣는 자리라는 미국의 메시지가 '하루 일정'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음.
- 게다가 미국은 이번 베이징 대화에 그동안 북한과 식량(영양) 지원 문제를 협의해온 로버트 킹 북한인권대사가 미국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음. 이번 대화에서는 비핵화 사전조치라는 본질적 현안 협의에 주력하고, 식량지원 문제는 비핵화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면 된다는게 미국의 의중으로 읽힘. 하지만 미국은 회담 일정에는 탄력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임.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와 관련해서 뭔가 내용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세부협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담 현장에서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일정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임.
- 미국이 이번 대화를 통해 확인하려는 또 다른 점은 북한 새 지도부의 속내임. 특히 북한의 수석대표로 나올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얼마나 위임을 받고 나올 지를 보면 김정은 체제가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게 미국 측 판단임. 이 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 사후 처음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수용한 북한의 신지도부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대북 정책의 흐름을 잡는데 매



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베이징 대화에서 북한이 과감하고 진전된 태도를 제시할 경우 6자회담 재개 일정을 신속하게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단 '탐색' 작업에 만족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음.

- 결국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와 관련해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 향후 북미 관계는 물론 6자회담의 재개 시간표 등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됨.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대화 이후 베이징에서 6자회담의 장격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6자회담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한 뒤 서울을 방문, 한국 당국자들과 향후 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북미회담 금주 재개..한반도 대화국면으로>(2/19)

-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차 북미 고위급 대화를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고 이에 연동해 미국이 영양(식량)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북미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난 3년간 동면상태에 빠졌던 6자회담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됨. 이번 주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후속 대화가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모멘텀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임. 북한은 대외 행보를 통해 후계구도의 안정적인 구축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고 주변국들도 갖 출범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관리에 북미대화, 나아가 6자회담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 이번 북미대화는 지난해 10월26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북미 대화 이후 4개월 만에 열리는 후속 회담 성격이지만 새로운 북한 지도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기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음. 북미는 김 위원장의 사망(작년 12월17일) 전 북한이 영변의 우리농축축프로그램(UEP)을 중단하면 미국이 24만t 규모로 영양지원을 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바 있어 이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음.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베이징 북미대화는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중단됐던 대화가 재개된 것이니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공감대를 이룬 선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할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할 방침임. 미측이 북한에 요구하는 사전조치의 핵심은 우리농축축프로그램의 중단과 함께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확인 및 감시를 수용하라는 것임. 결국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와 관련해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 향후 북미관계는 물론 6자회담의 재개시간표 등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됨.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면 6자회담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조속한 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있음. 이런 6자회담 당사국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진전된 태도를 보이면 상반기 중이라도 6자회담



- 이 개최될 수 있는 상황임.
- 북한이 체제결속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선택한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며 "향후 북미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비핵화 사전조치와 식량지원 등 큰 틀에서 뭔가 진행형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3차 북미대화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음.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알곡지원 문제 등으로 북미간에 밀고 당기기는 있겠지만 (김 위원장 사망 전) 잠정합의 틀 안에서 이른 시일 내에 뭔가 나올 것 같다"며 "북한으로서도 영변 우리농축산물로그램 동결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동결했다가도 언제든 봉인을 풀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3차 북미대화가 탐색전에 그치더라도 이후 대화과정에서 6자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만남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라고 말했음.
 -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있더라도 남북대화는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당분간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윤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선 대내 체제 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어서 한국이라는 존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북한이 전달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과 고구려 고분군 병충해 방제를 위한 실무접촉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임.

나. 중·북 관계

● "북한, 기술관료 등 1천명 중국 파견"〈日紙〉(2/15)

- 북한이 김정은 신체제 이후 경제와 무역 분야의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 등 약 1천 명을 중국에 파견했다고 도쿄신문이 15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복수의 북한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1월 말 이후 경제 무역 부문의 중견간부와 기술관료 등 1천 명을 중국의 북동부와 남동부의 도시에 있는 민간기업과 공장 등을 시찰하도록 파견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북한은 파견단을 10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나눠 중국 북동부의 선양과 다롄, 옌지 등 주요 도시와 남동부의 상하이에 있는 민간 기업과 공장 등을 시찰하도록 했음. 북한은 파견자들에게 중국 현지의 경제 무역 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도록 했음.
- 상하이와 다롄 등 중국 연안 도시는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구가하는 지역이며, 선양은 국영기업을 개혁해 다수의 외국계 자동차 회사 등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음. 신문은 북한이 이들 지역을 경제 개혁의 모델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신체제



가 변혁을 모색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음.

- 북한의 군부는 대외 무역을 통한 외화획득의 기득권을 잡고 개방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신문은 한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2010년 가을 이후 개혁개방 노선에 저항하는 세력 약 300명이 조선인민군에서 추방됐다는 정보도 있다고 보도했음.

● 北, 라선특구 4~6호 부두 50년 사용권 中에 넘겨(2/15)

- 중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북한 라선특구의 4, 5, 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아울러 라선특구 내에 비행장과 화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門)에서 라선특구까지 55km 구간의 철도 건설을 해주기로 했음.
- 15일 베이징(北京)과 서울의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양국이 작년 말 동북 3성과 라선특구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실제 투자금 30억 달러 규모의 라선특구 기반시설 건설 계약을 했음. 중국은 먼저 라진항에 4호 부두를 7만 규모로 건설하고 여객기와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장, 그리고 투먼-라선특구 구간의 철도건설에 2020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 계약은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정부 간에 체결됐으나 양국 모두가 사실 공개를 꺼리고 있음. 이 계약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전후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이 밝혔음.
- 중국은 이 같은 1단계 투자를 완료하고 나서 라선특구의 5, 6호 부두 건설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애초 정부 차원의 대북투자는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재작년과 작년에 4차례 집중적으로 방문하면서 다소 입장 변화를 한 것으로 보임.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신의주와 단동(丹東) 사이의 황금평에 중국이 '통 크게' 투자해주길 기대했으나 중국이 동북 3성의 물류 문제 해소 차원에서 동해 출항권을 확보할 수 있는 라선특구 개발을 크게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 동북 3성은 두만강 하류가 북한과 러시아의 공유 수면인 탓에 동해길이 막혀 엄청난 물류비용을 내면서 돌고 도는 다롄(大連)항과 단동항을 이용해야 했음. 이 때문에 중국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수년 동안 라진항 또는 청진항을 개방해서 동북 3성을 진흥시키려는 '창춘(長春)-지린-투먼 계획'을 추진해왔고,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지난 2008년 파내 보수와 확장공사를 통해 연간 100만의 하역 능력을 갖췄음.
- 하지만 이번 북중 간 라선특구 기반시설 건설 계약내용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계약 시비와 함께 라선특구가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北 라선특구, 中 경제권에 편입 '위기'>(2/15)

- 중국이 북한 라선특구의 철도·비행장·발전소·부두 건설권과 사용권을 사실상 '독차지'하면서 해당 지역이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는 것 아니



- 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중국과 북한 간 경제협력 차원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자본과 기술이 '전무'한 상황에서 라선특구는 중국의 일방적인 개발과 그에 따른 이익 추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임.
- 북중 양국이 최근 합의한 30억 달러 규모의 개발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라선특구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비행장과 철도 건설에 나섬. 철도는 한반도 최북단과 마주하는 중국 투먼(圖門)에서 라선특구까지 55 km 구간을 연결하며 비행장은 여객과 화물 운송 목적으로 건설됨. 열악한 전력 사정을 살피 화력 발전소도 건설됨. 발전소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문제는 계약 내용임.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은 2020년까지 30억 달러 투자로 해당시설을 건설하고 그와 더불어 사용권을 가짐. 아울러 실제 투입금 30억 달러에 이자 비용 수십억이 합쳐진 금액을 해당 시설 운영을 통해 뽑고 나서 이익금을 북한과 나누기로 한 것임. 이 때문에 라선특구는 중국 자본과 기술로 주요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질 예정이지만 그 시설에 대한 가동과 사용권은 상당기간 중국의 손에 쥐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북한 전문가는 "작년 6월 이후 북중 간에 라선특구 관련 협의가 가속화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이 결국 라진항에 부두 3곳을 신규로 짓고 이를 50년간 사용한다는 권리를 따낸 점임. 지난 2008년에 이미 라진항 제1호 부두 사용권을 따내고서 그동안 보수와 확장 공사를 벌여 연간 100만 규모의 하역능력을 갖춘 중국이 라진항 부두 3곳을 더 장악하게 됨으로써 '확실한' 동해 출항권을 보장받았다는 지적임. 중국 정부는 그동안 동북 3성의 진흥책 차원에서 라진항과 청진항을 연계한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 계획'을 추진해왔고 이제 본격적인 '실현' 단계에 들어갈 일만 남았음. 특히 중국은 라진항 1호 부두 보수 확장을 계기로 동북 3성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화물선 편으로 중국 남부 지역에 대량 운송하기 시작했음. 앞으로 라진항에 부두가 추가 건설되면 중국의 물동량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써 라선특구는 급속하게 중국 경제권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아울러 중국은 지난해 6월 훈춘과 북한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 대교 보수 공사를 완료했고 같은 해 4월부터 원정리에서 라진항까지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임. 이 역시 올해 6월이면 완료될 예정이어서 이 지역 중국 경제권의 확대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동해 축으로 라선특구를 넘어 청진, 원산항까지, 서해 축으로 황금평에서 남포로, 그리고 중간축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과 투자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급속하게 중국으로 예속화해갈 것"이라고 지적했음.

● "자동차로 북한여행 5월 재개 전망"〈中매체〉(2/15)

-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자가용 여행이 오는 5월 재개될 전망이라고 반관



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5일 보도했음. 이 매체는 중국청년여행사 장하오(江浩) 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 북한으로의 자동차 여행은 지난해 6월 청년여행사가 첫 실시했음. 북한 당국은 중국 여행객들이 자동차로 지린(吉林)성 훈춘시 취안허(琿河)를 출발, 라선특구로 진입해 라진항과 해양춘, 망해각 등의 방문을 허가했음. 중국신문사는 지난해에 모두 3차례 북한 자동차 여행이 이뤄져 승용차 42대에 150여 명이 라선특구를 찾았으나 같은 해 10월 멈췄다고 소개했음. 장 사장은 "겨울철에 기온 급강하로 도로가 얼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데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등의 이유로 자동차 여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양, 톈진, 광둥 등에서 참가의향을 보이고 있고 5월 1일 노동절 연휴가 절정기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 차량 60여대 정도 예약이 있지만 5월에만 600여 대가 북한 자동차 여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다. 러·북 관계

● <러 극동 아무르주, 北 대표단과 협력사업 논의>(2/14)

- 북한 경제 대표단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州)를 방문해 주정부 인사들과 양측의 경제협력 구체 방안을 협의했다고 극동지역 통신 '보스토크-메디아'가 이날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무르주를 방문해 올렉 코제마코 주지사와 회담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실무 접촉에 북한 측에서는 대외무역부와 섬유·신발·화장품 업체 대표들이, 아무르주 정부 측에선 대외경제협력부와 관광·산업 및 교통·농업·임업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했음. 회담에서 북측 대표인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국제교역 지원 위원회 진철호 위원장은 "북조선과 아무르주의 통상경제협력 관계 발전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라며 "북한은 아무르주와의 협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날 김 위원장 방문 이후 논의돼온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실무그룹 구성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북한과 아무르주는 현재 농업, 목축, 임업, 요식업 등에 걸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농업 분야에선 북한이 현지 자비틴스크 지역 농지 1천 헥타르를 임대해 내년부터 북한 노동자를 투입해 콩, 감자, 채소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협의 중임. 양측은 현재 임대료와 관련한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임대료는 가을 수확기에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또 북한과 아무르주가 합작으로 현지 톨렌스크 지역에 1천500km² 크기의 염소 농장을 만들어 내년부터 350두의 염소를 사육하는 목축업을 시작하고 3년 뒤에는 가축 수를 2천 두 까지 늘이는 사업도 협의 중임. 동시에 양측은 올봄부터 북한 노동자들을 현지 산림 지역의 식목 작업에 투입하고, 목재 가공을 위한 합작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임업분야 협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은 또 김정일 위원장의 아무르 주 방문 1주년이 되는 올 8월까지 현지에 북한 식당을 여는 사업도 제안했음.

- 북측 대표단은 14일부터 이틀간 현지 기업들을 시찰한 뒤 16일 귀국할 예정임.

● **러 대통령, 김정일 생일 맞아 김정은에 축전(2/16)**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평양방송이 16일 전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축전에서 "러시아는 김정일 각하가 두 나라 사이의 선린관계 발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나는 오랜 친선과 호상 존중의 전통에 기초하는 러-북 협조가 조선반도와 아시아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북한단신〉 주러 北대사관서 연회 개최(2/17)**

-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아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이 지난 14일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음. 연회에는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과 상원 및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음.
- ▲ 비탈리 이그나텐코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사장이 김 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아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축하 편지를 보내 김 위원장이 생전에 이타르타스와 두 차례 인터뷰를 가진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중앙통신이 17일 전했다.

라. 기 타

● **〈핵의혹 서방 제재에 北-이란 '밀착모드'〉(2/13)**

- 이란과 북한의 관계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양상을 띠고 있음. 동병상련이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겨 챙겨준다는 뜻임. 실제로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미국 등 서방세계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면서 양측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분위기임.
- 북한과 이란이 수교한 것은 1973년 4월임. 특히 1983년 '탄도미사일 개발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며 반미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 시작했음. 이후 양측은 항공운항협정(86년8월), 무역 및 경제기술협정(89년6월), 원유공급협정(91년2월), 치안협력협정(96년11월) 등 다양한 협정을 맺었음. 북한과 이란은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으로부터 나란히 '불량국가'로 지목받으면서 더욱 가까워졌음.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기 시작한 것임. 모하마드 하타미 전 이란 대통령은 2003년 이란 주재 북한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정치·경제·문화 모든 면에서 조선과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



- 년 전후로는 양측 외교사절단이 해마다 상대국을 교환 방문했음.
-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에서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을 끊임없이 받아왔음. 북한과 이란의 동맹관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제재 속에서 한층 강화되는 양상임.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란 압박에 대해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 주요매체를 동원해 "자주권을 침해한다"며 국제사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평화적 핵활동을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로 간주하는 이란과 그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동맹국까지 동원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 어느 쪽이 정의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이란을 편들었음.
 - 우리민족끼리는 8일 남한의 대이란 제재 동참에 대해서도 "자주성도 자존심도 없다"고 비난했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7일 이란의 이슬람 혁명 33주년을 맞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좋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리라고 확신한다"고 격려를 전했음. 이 같은 북한의 노골적인 '응원'에 이란도 조용히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취임에 축전을 보냈고, 이란 일간지 '이란뉴스'는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노선'을 설명한 작품을 김 위원장 사진과 함께 소개하기도 했음.
 - 이란은 대외적으로 "남북한 모두와 우호적이고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표명해왔지만 최근 들어 한국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는 분위기임. 이란이 서방의 자국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석유수출을 거부하겠다고 관계악화를 강력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임. 이란과 외교관계만 놓고 보면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반면 북한은 느긋한 처지에 놓여있는 셈임.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3일 "북한 역시 핵문제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미국 등의 대이란 압박에 비난공세를 퍼는 것은 결국 핵개발에서 양측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北장애인보호연맹, 세계농아인연맹과 협력 MOU(2/14)

- 북한 조선장애인보호연맹이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세계농아인연맹(WFD)과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전했다. 세계농아인연맹 대표단은 2008년 북한의 함흥농아학교, 성천농아학교 등을 처음 방문해 농아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조선장애인보호연맹과 논의한 이후 북한 농아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방안을 모색해왔음. 세계농아인연맹은 홈페이지(<http://www.wfdeaf.org>)에서 "북한에서 농아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아인에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북한 조선장애인보호연맹과의 상호협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아인 권리 보호를 위해 1951년 설립된 민간단체인 세계농아인연맹은 120여 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유엔의 자문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음. 4년에 한번씩 세계농아인대회도 개최함.

● 앰네스티 "中, 탈북자 복송 중단해야"(2/15)

-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가 최근 중국 선양 등지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이 복송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 중국 정부에 탈북자 보호를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전했다. 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탈북자 24명이 한국행을 시도하던 중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강제 복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탈북자들이 복송되면 구금과 고문, 심지어 처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음. 앰네스티의 샘 자리피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성명에서 "권력 교체기에 있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도강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발표해 상황이 더 위태롭다"며 "유엔난민협약국인 중국은 탈북자들이 망명절차를 밟고 유엔 난민기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워싱턴에 있는 북한자유연합도 전날 미국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에게 탈북자를 복송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北 라진항 부두 사용권 누가 가졌나>(2/15)

- 중국이 최근 북한 라진항의 4, 5, 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따냄으로써 라진항 내 부두 현황과 하역 능력에 관심이 쏠림. 현재 라진특구에는 부두가 3개 있음. 1호 부두는 중국이 사용권을 갖고 있음.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소재 창리(創立)그룹이 2008년에 취득했음. 창리그룹이 이미 부두 정박지 보수와 확장을 통해 연간 100만톤의 하역 능력을 갖췄음. 이를 바탕으로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 일대 석탄 업계는 화물선을 통해 자국 남부로 석탄 수송을 늘리려고 증산에 나서고 있음. 라진항을 통한 동해항로를 이용하면 기존 다롄(大連)항까지 철도로 운송하고서 서해 항로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물류비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임.
- 2호 부두는 북한 당국이 국제화물을 다루는 곳임. 3호 부두는 러시아가 사용권을 갖고 있음. 러시아는 자국의 자루비노 항이 겨울에 3~4개월 얼어붙는 탓에 수출입에 문제가 생기자 중국보다 먼저 라진항 3호 부두의 49년 사용권을 확보했음. 현재 라진항의 부두 3곳은 400만톤의 화물 처리능력과 10만톤의 화물저장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더불어 그동안 북한 매체들을 통해 중국이 라진항의 4, 5호 부두를 확보할 것이라는 소문은 있었고 이번에 북한이 정식 계약을 통해 중국에 4, 5, 6호 부두의 건설권과 50년 부두 사용권을 넘긴 것임. 중국은 우선 라진항 4호 부두를 7만톤 규모로 짓고 5, 6호 부두 건설은 그 이후 건설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음. 북한 당국은 애초 라진항 4, 5, 6



호 부두를 각각 30만t 규모로 지어 각각 화물과 컨테이너 하역, 그리고 여객 하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나 중국의 주장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해 9월 17일 "라진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화물수송을 추진하기 위해 부두 13개를 새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北 OECD서 4천300만 불 빌려…절반 상환(2/16)

- 북한이 지난 7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약 4천300만 달러를 빌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갚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음. 에르날도 드 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국 연구원은 북한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620만 달러를 OECD에서 빌렸으며 "OECD가 최근 7년 동안 공적개발원조(ODA)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한 대출금은 4천315만 달러이고 이 중 북한이 되갚은 금액은 2천233만 달러"라고 이 방송에 말했음.
- 그는 또 "최근 대출은 2010년 쿠웨이트가 빌려준 626만 달러로 북한은 이 중 364만 달러를 OECD 산하의 국제개발기금(OFIG)에 갚았다"고 전했다.
- OECD는 현재 북한에 경제기반 시설과 교육, 인도주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빌려주고 있음.

● "외국기업, 북한 투자기회 엿봐" <BBC>(2/16)

- 북한 김정은 체제가 지향하는 방향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김정은이 북한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으려 한다면 어떠한 사업 기회라도 붙잡으려는 외국기업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영국 BBC방송이 16일 보도했음. BBC에 따르면 독일·러시아·인도·태국 기업들이 이미 북한과 교역하고 있고 호주와 영국도 각각 북한의 광산과 금융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북한에서 사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음.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최근 북한에서 사업하는 300명의 중국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가까이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환경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음. 불만 가운데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제전화 차단과 뇌물·부패, 규정의 임의적 변경 위험, 분쟁시 이를 조정해줄 믿을만한 판정의 결여 등이 포함됐음. 이 때문에 중국기업들은 북한과의 비즈니스에서 투자보다는 교역을 선택한다고 피터슨 연구소의 조사는 결론 내렸음.
- 그러나 북한 측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음. 북한 사람들에게 경영기법을 가르치는 자문그룹 '조선 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집행이사는 "지난 수년간 북한이 외국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허용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상의 개선이 있었다"고 말했음. 그는 북한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다면서 "웰빙이나 삶의 질, 경제발전 등에 관한 얘기들을 자주 들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중국에서 활동하는 시장분석가 이면서 북한역사에 대한 저서를 펴낸 폴 프렌치는 "북한 내 압록강 주변 마을에 가보면 중국 측에 팔려고 쌓아놓은 목재와 구리선, 고철더미를 볼 수 있다"면서 "국가 자산을 도매로 처분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그는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북한에 가서 (사업)계약에 서명했다면 공장에서 스위치를 켜고 기계를 다시 가동할 사람이 남아있느냐는 것이다"라고 북한 내 사업여건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렸음.
-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추산에 따르면 2010년 북한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는 3천800만 달러이고 지난 10년간 해외로부터의 대북한 투자총액은 14억7천500만 달러에 달함. 이중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임.

● 시진핑 "한반도, 이란핵 등 조율 강화 필요"(2/16)

-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은 15일(현지시간) 한반도 문제와 이란 핵문제를 포함한 분쟁지역 문제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간의 조율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음. 미국을 방문중인 시 부주석은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와 이란 핵문제 상황 발전을 포함한 분쟁 지역에 대한 중국과 미국간의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체제를 더욱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음. 그는 "이 세계는 현재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중국과 미국은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제 문제에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또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환영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의 핵심 이익과 주요한 우려사안들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방산기술 유출 방지대책 마련 협조키로(2/14)

- 한국과 미국은 방산제품을 수출할 때 상호 기술유출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음.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부터 10일 까지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방산기술보안청과의 제3차 한미 군사기술보안회의(DTSCM)에서 방산기술보안과 수출통제 절차를 논의했다고 14일 밝혔음. 권오봉 방사청 차장과 제임스 허시 기술보안청장이 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방산품을 국외에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데 미국이 지원을 약속했음.
-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수출국으로 변화하고 있어 수출에 따른 기술 관리, 제도, 절차 등을 수립하는 데



- 필요한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미측은 한국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등을 미국의 법과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의에서 미측은 자국의 군사기술을 원천으로 제작된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할 때는 해당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제도와 절차를 한국이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지난해 F-15K 전투기의 군사장비 기술도용 의혹을 제기한 이후 한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해왔음. 방사청은 "방산기술보안과 수출통제 제도를 선진화해 우리나라의 방산기술 유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 2010년 처음 열린 DTSCM은 군사기술의 국내 활용과 이를 제3국에 수출할 때 통제기법 등을 논의하는 한미간 정기적인 협의체임.

● "유사시 美파병 의심되면 전작권 환수 늦춰야"(2/14)

- 유사시 대규모 미군 지원병력이 파병되지 않을 것이란 의구심이 우리 사회에 있다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한국경제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원은 1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등 10개 안보전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세미나 주제 발표문을 통해 "전작권 환수의 논리적인 근거는 영성하기 그지없다"면서 그같이 말했음. 이 선임연구원은 "한국군이 전시에 단독으로 작전을 통제했을 때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한다면 미국이 예전과 같이 막강한 병력을 지원할지 의문"이라면서 "미국의 군사 전통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미국이 자신이 통제하지 못할 전장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 그는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는 우리의 힘이 더욱 커지고 북한의 위협이 훨씬 줄어든 시점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소멸하는 시점으로 연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열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은 주제발표문에서 북한이 SNS(소셜 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대남 선전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북한의 인터넷 운용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음. 그는 "북한의 인터넷 운용체계는 자체 개발한 리눅스에 기반을 둔 '붉은별'이다. 이에 접속해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성김 대사, 인터넷 동영상 통해 '소통' 강화>(2/15)

- 성김 주한 미국대사가 인터넷 동영상을 이용해 한국 네티즌들과의 '특별한 소통'에 나섰다.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이 새롭게 준비한 '대사님, 질문 있어요!(Ask the Ambassador: ATA)' 프로그램을 통해서임. 김 대사는 그동안 주한미국대사관 트위터와 페이스북, 미투데이 계정을 통해 들어온 네티즌들의 질문에 대한 첫 답변 동영상을 15일 주한미국대사관 SNS에 공개했음.



- 동영상 초반 유창한 한국어로 "ATA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문을 연 김 대사는 우선 '한미관계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는 김재명씨의 질문에 답했음. 김 대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도 "최고의 관계에도 개선의 여지는 있으며, 당연시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4가지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일할 것"이라면서 "군사협력 강화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한반도를 넘어선 협력, 인적교류가 그 '4개의 기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미 양국 간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ATA 프로그램도 그 중 하나이고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다. 인적교류 개선방안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당부했음.
- 김 대사는 또 '한국에서 미국의 대사로 일하는 것에 대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적은 없나'라는 오병철씨의 질문에 "제가 태어난 한국에서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이라면서 "저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며 아직까지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일이 없다"고 답했음. 그는 이어 "제가 한국계라는 배경은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그 덕분에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외교관 경력의 절반 이상을 한반도 업무를 했기 때문에 한반도 관련 사안과 도전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 성김 대사는 마지막으로 "오늘이 첫 번째 ATA이다 보니 다소 어색한 점이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음.

● 20~24일 서해서 한·미 연합대잠훈련(2/16)

- 북한 잠수함(정)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 훈련이 오는 20~24일 서해에서 실시됨. 군 관계자는 16일 "오는 20일부터 5일간 서해 군산 앞바다에서 한미 해군이 연합 대잠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 잠수정(함)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전술과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대응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이 관계자는 "지난해 실전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 '울곡 이이함'을 비롯해 함정 20여척과 링스헬기, P3-C 등이 동원된다"면서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치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해 12월 양국 해군은 제2차 한·미 해군회의를 열고 매년 2차례 정례적으로 연합 대잠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이와 함께 군은 2015년까지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하고 부대운영 용역 등의 비용으로 올해 6억3천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음.

● <워싱턴 외교가, 韓대사 '돌연사의' 추측무성>(2/17)

-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한국으로 들어갔다 16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주미대사는 주초 서울로 향하기 직전까지도 대사관 직원들에게 사퇴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 오히려 최근까지 3월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준비 등으로 "매우 열성적으로" 일했다는게 측근들의 전언임. 이 때문에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음.

- 한 소식통은 "한 대사를 얼마전 만났더니 현 정부 임기말까지 주미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뜻이 확고했으며, 올 연말 대통령 선거 이후 내년초 후임 대사가 임명될 때까지 워싱턴DC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에 오르기 전,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장과 FTA 국내대책위원장을 역임한 한 대사는 특히 한미 FTA 발효에 큰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 대사의 돌연사의 표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반응임. 특히 시기적으로 볼 때 더욱 수궁이 안가는 대목이 있음.
- 후임이 빨리 결정되더라도 신임장 제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공식 대사 업무를 시작하는데 최소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 그 사이에 한미 FTA 발효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3월말에는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게 됨. 두 사안 모두 한 대사가 직·간접적으로 챙겨야 하는 현안임. 또 현재 후임으로 거론되는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두 사안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갑자기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아울러 일각에서 김성환 현 외교통상부 장관을 후임 주미대사로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외교 관례상 어색한데다 연쇄적인 인사요인이 발생함.
- 한 대사는 또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이란산 원유 금수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본격 협의도 앞두고 있었음.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도 한 대사가 갑작스럽게 물러나게 된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성김美대사 "한미동맹 바위처럼 굳건">(2/17)

- 성김 주한 미국대사는 17일 "한미동맹은 바위처럼 굳건하다"면서 "우리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동맹을 더욱 굳건히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자신의 블로그 '올 어바웃 성김'을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수도권에 있는 주한 미군기지 두 곳을 방문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미 군사동맹과 양국간의 지속적인 인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지난달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를 방문했던 일을 거론하면서 "저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9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다면서 "캠프의 미군 한 명이 자원봉사로 영어를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이 한국인을 만날 때 그들은 모두 미국의 대사"라면서 "그들은 그런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고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美, 비석유 이란교역 제재 '韓 예외' 인정(2/19)

- 미국이 국방수권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제재에 들어가는 이란과의 비석유 부문 교역에 대해 한국은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비석유 분야는 정부 소유나 통제 하의 은행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면 예외를 인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로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0% 이상인 만큼 예외에 해당한다는 한미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는 2천여개 국내 기업은 대부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무역금융을 이용하고 있어 거래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석유 부문 제재와 원유시장 동향을 고려해 내달 말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석유 부문 제재를 구분하고 있음. 정부는 비석유 부문 제재에 대비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제재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협상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두 은행이 예외를 인정받음에 따라 서둘러 대표단을 파견할 필요가 없어졌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석유 부문 제재와 관련해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양국 모두 이해하고 있다"며 "당초 이란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미국에 대표단을 보내려고 했는데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다만 석유 부문은 이란산 원유수입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의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수준으로 원유수입을 줄여야 함. 국방수권법을 발의한 마크 커크(공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은 미 행정부에 원유규모를 연간 18% 이상 줄여야 예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음.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3월 말까지 석유시장 동향을 보면서 석유 부문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협상 대표단은 제재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 전후로 보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유가 동향을 감안할 때 석유 부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미국 행정부가 내달 말 석유 부문 제재를 결정하면 올해 6월28일부터 제재가 시작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180일 후 제재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됨.

● 한미 FTA 발효시점 금주에 가닥 잡힐 듯(2/19)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점이 이번 주에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음. 1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최석영 외교부 FTA 교섭대표는 미국 시애틀에서 19~20일(현지 시간) 이틀간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부와 만나 양국 FTA 이행준비 상황을



점검함. 최 대표와 커틀러 대표부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고위급 회의는 지난달 말에 이은 두번째로 사실상 테이블을 사이에 둔 마지막 대면회의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됨.

- 양측은 이행준비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발효준비가 완료됐다는 서신을 늦어도 이달 안에 교환할 예정임. 협정문에 한미 FTA 발효시점은 서신교환 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정한 날로 함.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양국의 발효준비는 95% 이상 마무리된 상태로 보면 된다"며 "회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결과가 좋으면 이번주에 FTA 발효시점의 가닥이 잡힐 수 있다"라고 기대했음.
- 두 나라는 작년 11월 22일 우리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서 12월 초부터 수차례 걸친 대면회의, 화상회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법률안의 협정문 합치 등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음.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를 1월 1일 목표로 잡았다가 미국의 연말연시 휴가 시즌과 법률안의 번역작업 지연 등이 겹치면서 2월 말 혹은 3월 초로 시점을 늦춰 발효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

나. 한·중 관계

● 해경-3함대, 中관공선 무단순찰에 공동 대응(2/14)

-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군 3함대사령부는 14일 서남해 안보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음. 양 기관 지휘부와 핵심 참모들은 이날 서해해경청에서 업무 협조 회의를 열고 완벽한 해상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음. 특히 지난 4일 중국 관공선이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 설치된 가거초 해양기지를 무단 순찰하다 퇴거 조치된 사건과 서·남해 외국어선 불법 조업에 따른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음. 해군과 해경은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여수 해양 엑스포 개최에 따른 주요 항만과 국제여객선 등 다중 이용시설, 원전 등 임해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대책 방안도 논의했음.

● 한중, 다각적 외교접촉 추진(2/16)

-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탈북자 문제, 자유무역협정(FTA) 등 그 어느때 보다 복잡하고 다면적인 중국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다각적 외교접촉을 추진하고 있음.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16일 "정부는 한중 수교 20주년인 올해 중국과 다양한 레벨에서 폭넓게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외교적인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 1분기 한중 간 외교일정이 매우 복잡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 외교통상부는 이달 중 중국과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이 회의는 양국 외교부 담당 국장 외에 다른 부처 인사까지 포함해서 여는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임. 지난해 12월 외교부 조세영 동북아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튀자오웨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아



- 주국장과 이주국장 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튀 국장 등 중국 측 인사가 방한할 것으로 전망됨.
- 5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3월에는 3국 실무자간 면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3국 협의와는 별도로 외교부 차관보나 차관급에서 한중간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중 정상간 양자 회동도 추진되고 있음. 중국측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참석할 예정임.
 - 이런 한중간 연쇄 접촉에서 우리측은 당면 현안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중국 내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임. 정부는 지난해 12월초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측에 '2+2(외교+어업당국)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최근에도 재중 공관을 통해 중국 외교부에 이런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측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강제 복송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중국측은 양국간 FTA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 한 정부 소식통은 "한중이 외교관계 수립이후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양국 관계를 잘 관리하고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당면 현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태희, 이달 초 베이징서 北관리 접촉(종합)(2/16)

-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지난 2-4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북한 관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16일 "임 전 실장이 일행 1명과 함께 북한 대사관의 참사관 2명을 만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 전 실장과 동행한 인물은 북한 전문가 겸 사업가로 알려진 유모 씨로 알려졌다.
- 이 소식통은 "임 전 실장이 북한 측 인사들에게 북한 측이 개성공단, 금강산 등의 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 서로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요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09년 10월 노동부 장관 시절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비밀회동을 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를 논의한 바 있음. 이런 점 때문에 임 전 실장이 이번에도 북한 측 실무인사 접촉을 통해 '상부'와 만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그러나 임 전 실장 일행은 베이징 체류 기간에 과거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접촉선 인사를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배구 협회장인데 중국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베이징에서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그만 합시다. 사적인 방문이니까 그렇게 (기사에) 넣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다. 한·일 관계

● <10년간 '친한파' 日학생 수백 명 양성>(2/13)

- "10년간 일본 젊은이 수백명을 '친한파(親韓派)'로 만들었다는 데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신경호(50) 일본 고쿠시칸(國士館)대 21세기아시아학부 교수는 한일 월드컵이 열린 이듬해인 2003년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학부 재학생들을 고려대에 보내 한국어 단기 연수를 받도록 했음. 올해로 10년째. 그동안 다녀간 학생 수는 800명을 넘어섬. 신 교수는 13일 "감수성이 예민하고 머리가 굳지 않은 젊은 학생들이 매년 신선한 충격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간다"며 "세월이 흐르면 이들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가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지난 9일부터 고려대에서 한 달간 진행되는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은 고쿠시칸대 21세기 아시아학부에서는 전공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외국어 연수과정 중 하나임. 아시아학부에는 한국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6개 외국어 과정이 있음. 중국어보다 한국어 강의를 택하는 학생이 더 많은 대학은 일본에서 고쿠시칸대가 유일하다고 신 교수는 설명함.
- 신 교수가 프로그램 기획부터 학생 인솔, 사후 평가까지 전담하는 한국어 연수는 단순한 한국어 습득을 넘어 문화와 역사 체험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함. 학생들을 독립기념관과 판문점에 꼭 데려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임. 독립기념관은 양국 간 암울한 과거사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게 하려는 취지임. 판문점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출발함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임. 신 교수는 "일본 학생들은 근현대사에서 자신들이 아시아 주변국들에 저지른 잘못을 배울 기회가 없다"며 "한국에 왔을 때 것처럼 암울한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새로운 양국관계를 개척할 의지를 갖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생들이 한국 연수를 단순한 '여행' 정도로 여기지 않도록 사전에 '연수용 필수 강의'를 수강토록 하고, 연수 중 출석 점검은 물론 연수가 끝나면 시험을 봐 60점을 넘지 않으면 재수강까지 하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것도 특색임. 신 교수는 "연수에 참가한 학생 대다수가 '친한파'가 돼 한국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은 물론 한국 정치·경제·문화를 두루 다루는 세미나 수업의 경쟁률이 10대1에 육박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밝혔음.
- 신 교수는 니혼(日本)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영국 런던정경대(LSE) 방문연구원을 거쳐 2002년부터 고쿠시칸대에서 유일한 한국인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그는 2009년부터 전남대에도 학생들을 보내고 있음.



● <평화비 앞 무릎꿇고 흐느낀 일본인 노무라>(2/13)

-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연주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면 '봉선화'라는 곡이 탄생하지 않았겠죠.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13일 오전 10시 40분께 왜소한 체격의 한 일본인 노인이 점퍼도 걸치지 않은 채 플루트 케이스를 들고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위안부 소녀상)를 찾았음. 이 노인은 70~80년대 청계천과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빈민구제 활동을 벌였던 일본 아마나시현 베다니교회의 노무라 모토유키(81) 목사.
- 평화비를 마주한 노무라 목사는 잠시 묵념을 한 뒤 악보를 펼치고는 플루트를 꺼내 흥남과 작곡의 '봉선화'를 연주했음. 2~3분에 걸친 연주를 끝낸 노무라 목사의 시선은 다시 평화비를 향했음. 그는 손수건을 꺼내 입을 가리고 흐느끼더니 이내 평화비 앞에 무릎을 꿇었음. 간신히 감정을 추스른 노무라 목사는 평화비에 장미 한 송이를 헌화한 뒤 '진혼가와 '우리의 소원'도 연주했음. 연주를 마친 노무라 목사는 통역을 통해 "난 5살 때부터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조선진'이라 부르며 무시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75년간 느낀 한국인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연주로 담아냈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난 일본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일본군 위안부)은 국제적으로 미묘한 문제다. 이번 일로 난 일본 대사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 각오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노무라 목사는 12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빈민운동가 고(故) 제정구 전 국회의원 13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입국했음. 그는 70년대 초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제 의원 등과 함께 청계천과 경기도 화성에 빈민자활공동체의 탁아소를 세우는 등 구제지역에 힘썼음.

● 근로정신대-미쓰비시, 14일 도쿄서 올 첫 협상(2/13)

-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배상문제와 관련, 미쓰비시와의 올 첫 협상이 14일 열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4일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에서 올 해 첫 협상을 한다고 13일 밝혔음.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지만, 미쓰비시 측은 "1965년 한일협정에 근거해 이미 재판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태임. 협상단은 이상갑 변호사, 이국언 시민모임 사무국장 등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공식 협상단에 한국 측 대표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향후 전후 배상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 1944년 일본의 군수업체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징용된 근로정신대 할머니 140여 명은 지난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도쿄 재판소는 2008년 11월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음. 그러나 이후 시민모임을 주축으로 한 208일간의 1인 시위, 13만 5천여 명에 이르는 항의 서명운동, 자동차 불매운동, 도쿄 원정 시위 등으로 한국 내에서 반(反) 미쓰비시 분위기가 확산됐고 미쓰비시 측은 2010년 7월 협상을 수용했음. 김화용 시민모임 대표는 "시민의 지지와 열망이 제1의 전범기업을 협상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이었다"며 "10만 희망 릴레이로 모아 주신 국민적 열망을 안고 2012년을 국격을 회복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음.

● 日정부, 한국 공관 앞 '다케시마비' 불허할 듯(2/15)

- 일본 우익단체가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 세우겠다고 밝힌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양국간 외교마찰이 커질 수 있는 다케시마 비석에 대해 일본 정부가 허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 한국의 시민단체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를 세우자 일본의 우익단체인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은 도쿄 소재 한국대사관 앞에 다케시마비를 세우겠다고 작년 12월21일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했음. 이 당국자는 "지자체 허가사항으로 우리 정부에 통보할 사안이 아니고 최종 의사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 내에 불허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음.

● <강제동원 역사 파헤치는 일본인 전직 교사>(2/19)

- "오키나와(沖縄)에도 조선인이 강제동원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동원됐고 사망자는 몇 명인지 명확한 자료가 없어요. 이런 식이면 우익의 공격을 받습니다. 한일 공동 조사가 필요한 이유죠." 일본 류큐(琉球)대와 릿쿄(立教)대에서 국제협력을 강의하는 요시모토 유키오(善元幸夫·61)씨는 일제 강점기 오키나와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문제를 파헤치고자 2010년 초등학교 교사직까지 그만둔 이력의 소유자임. 그런 그가 최근 한국을 찾았음. 서울과 경기도 구리에 사는 오키나와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와 유족을 만나 진술을 받고,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전담 기관에 오키나와 동원 피해 실태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하기 위해서임.
- 요시모토씨는 2009년부터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본격적으로 몰두했음. 그가 당시 오키나와에서 본 '평화의 초석'에는 태평양전쟁 기간 오키나와에 강제동원됐다 숨진 조선인 희생자가 446명으로 새겨졌는데, 인근에 세워진 위령탑에 기록된 희생자 수는 1만 명으로 상당한 차이가 난 것이 계기였음. 자신이 접한 다른 기록에서도 오키나와 강제동원 피해자가 3만 명, 1천500명 등으로 들쭉날쭉하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함. 요시모토씨는 19일 "오키나와는 태평양전쟁 당시 최대 격



전지였으나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피해만 기억한다"며 "피해 실태에 관한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일본 우익이 '조선인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음.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오키나와 현지 단체들이 공문을 보내면 이를 받아들여 공동 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오키나와 강제동원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음. 이들 단체가 현지에서 조사를 맡고, 위원회는 그간 접수한 강제동원 피해 신고 사례와 동원자 명부를 중심으로 동원지와 동원 형태 등 피해 실태를 파악해 일본 단체 측에 제공한다는 계획임. 요시모토씨는 "실제 오키나와에서 조선인 1만명이 숨졌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뿐 아니라 당시 일본인은 물론 조선인도 이곳에서 전쟁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일본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음.
- 그는 오키나와에 관심을 두기 이전에도 1995년 한일 양국 교사들로 이뤄진 '일한합동수업연구회'를 설립, 일본의 전쟁범죄와 타국민의 피해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 방안을 연구하는 등 한일 과거사 교육에 힘을 쏟았음. 이 단체가 2009년 시작한 '손자에게 전해주세요'라는 프로그램은 오키나와에서 전쟁을 경험한 이들이 젊은이들에게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이들이 더 어린 학생들에게 이를 전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3년째 계속되고 있음. 그는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보수적인 분위기, 더불어 전쟁범죄 문제에 젊은 층의 관심이 적다는 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내비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교사를 해고하는 등 일본 교육 현장에서 우익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구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연령대도 높은 편이죠. 장래가 어둡긴 하나 아이들에게 전쟁의 실상을 계속 교육하는 것만이 희망입니다."

라. 미·중 관계

● "중시진핑, 미국 방문길에 올라"〈신화〉(2/13)

-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13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통신은 시 부주석이 미국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터키를 방문하고서 22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시 부주석의 이번 순방에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부장,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 장샤오창(張曉強)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 등이 수행했다고 소개했음.
- 시 부주석은 현지시간으로 14~17일 미국을 방문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조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 등 행정부의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임. 미국 상·하원을 찾아 의회지도자들과도 회동함. 시 부주석은 특히 27년 전 공산당 초급 간부 시절 가축 사육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했던 아이오와주의 머스카틴도 방문해 '지인'들과 만나는 이벤트도 준비 중임. 시 부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미중 양국은 위안화 환율 문제와 각종 무역 갈등,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 시위, 인권 문제, 이란 핵 문제와 시리아 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방미가 지난해 바이든 미 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 시 부주석이 오는 가을 제18차 당 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자리를 계승할 차기 최고지도자라는 점에서 그의 방미 성과에 주목하고 있음.

● 美 클린턴 · 中 다이빙궈 전화 회담(2/14)

-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3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로 회담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4일 보도했음. 통신은 회담에서 양자관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미국 방문, 시리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고 소개했음. 다이 국무위원과 클린턴 장관은 올해가 미중 모두에게 중요한 해라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바를 기초로 대화, 신뢰, 협력을 강화해 상호 존중과 호혜의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해가기로 했음. 이들은 아울러 시 부주석의 이번 방미가 양국 관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뿐더러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했음.
- 시리아 사태와 관련, 다이 국무위원은 본질적으로 '내정'이기 때문에 중국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관련 국제사회 규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다이 국무위원은 그러면서 중국은 정치적 절차를 통해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려는 아랍 국가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절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시리아 문제에 대해 중국과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오바마, '中 불공정교역 개선예산' 요청(2/1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국 등이 국제 교역규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기금 2천600만 달러 조성을 의회에 요청했음. 제니 스퍼링 백악관 경제자문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예산 요청은 "중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교역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정된 기금의 50~60%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미국의 감시·조정역할을 개선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 정부는 또 2014년까지 미국 수출 규모를 두배로 늘린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의 재정도 14% 올려 5억1천700만 달러로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음. 이런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무역관련 플랜의 윤곽은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언급한 관계기관 교역강화센터에서부터 드러났음. 그는 특히 미국상품 위조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부주석이 오바마 대통령



- 과 조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료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이런 예산 요청이 이뤄진 점도 같은 맥락임. 이 관계기 관교역강화센터는 국내외 교역규칙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연방정부 내 포럼으로 운영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무역대표부(USTR)와 ITA가 함께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매튜 굿맨 아시아담당 애널리스트는 "미국 정부 내에는 중국이 항상 국제교역 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음. 그는 하지만 "양국은 이번 시 부주석 방문시 오래 묵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보다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더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미 상무부 레베카 블랭크 경제담당 차관은 새로 책정되는 재정 기금 2천 400만 달러는 ITA에 쓰이고 나머지 200만 달러는 USTR에 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음. ITA는 외국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수출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반덤핑과 조세관련 업무도 관장함. 이에 대해 데이브 캠프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오바마의 예산안에 대해 다소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강제를 통한 교역강화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음.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서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아랍의 봄'에 휩쓸린 나라들에 대한 경제 원조를 위해 8억달러 이상 규모의 예산도 요청했음.

● "오키나와 美軍 재편은 中 포위 목적"〈아사히〉(2/14)

- 미국이 후텐마(普天間) 해병대 기지의 이전 전망이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해병대 일부 병력을 미국령 괌으로 옮기려고 서두르는 배경에 중국 포위 전략이 깔렸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미국이 지금까지 오키나와(沖縄)에 집중돼 있던 미군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등으로 분산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미국 측이 지난 1월 초에 시작한 미일간 협의에서 '대(對)중국 시프트(이동)'가 미군 재편의 목적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했다고도 이 신문이 전했다. 신문은 또 이 같은 미군 재편의 중심적인 위치에 괌이 자리잡고 있다고 짚었음. 오키나와,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등지로 3시간이면 부대를 파견할 수 있으면서도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괌에 해병대 사령부를 두려고 한다는 것임. 새로 재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에서 괌은 '두뇌', 오키나와·필리핀·싱가포르·대만은 '팔다리'가 되는 그림임. 미국이 최근 일부 해병대의 괌 이전 계획과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분리하기로 한 배경에도 이같은 의도가 깔렸다고 분석했음.
- 미 의회가 2012회계연도(2011년10월~2012년9월) 예산에서 해병대의 괌 이전 관련 비용을 전액 각하하는 등 후텐마 기지 이전 지연에 불만을



표시하자 미 행정부가 "후텐마 기지 이전 없이는 오키나와 해병대의 광 이전은 없다"는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해병대 사령부 기능을 광으로 옮기는데 집착했다는 것임.

● 시진핑 "美, 신뢰구축 위해 구체적 조치 필요"(2/14)

-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차기 지도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양국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음. 시 부주석은 이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특히 중국의 핵심이익에 관한 문제들을 적절하고 신중하게 다루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시 부주석은 또 "미국이 중국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그의 방미 첫 번째 일정으로 이뤄진 이날 모임에는 국무장관 출신인 헨리 키신저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이 참석했음. 시 부주석은 이어 "양국은 경제 및 무역 협력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윈-윈(win-win)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을 통해 마찰과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음. 아울러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가 세계 최대 경제국가들인 양국의 유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시 부주석은 덧붙였음.

● <오바마-시진핑 첫 만남..'G2 긴장감'(2/15)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1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만났음. 외교적으로 이날 만남은 수평적 자격의 회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오는 10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될 것이 확실한 시 부주석이지만 아직은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카운터파트가 아니기 때문임.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에 격(格)을 따지는 분위기는 별로 없음. 이미 중국의 5세대를 상징하는 '미래권력'으로 등장한 시진핑의 위상이 그만큼 확고함을 말해줌. 오히려 향후 중국의 10년을 책임질 시진핑과의 만남을 부각시킴으로써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시진핑과 함께 국제질서를 주도해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효과를 오바마 대통령이 노렸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옴.
-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시진핑 회동'에 대해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과의 만남이나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과 덩샤오핑(鄧小平)의 회담과 같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미국과 중국이 함께 소련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거나 '떠오르는 중국'이 자본주의를 배우는 계기를 찾은 것처럼 시진핑의 방미를 통해 이른바 세계의 '2013체제'를 이끌 두 지도자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임. 실제 시진핑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형식적으로 외교상대인 조 바이든과의 회담을 비롯,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



- 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 등 미국 정부의 핵심인사들을 두루 만났음. 시 부주석은 방미 첫날인 13일 저녁에는 미·중 수교의 주역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포함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 등 미국 전직 고위관료들과 만찬을 했음. 한마디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대거 받아들인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 지 한세대 만에 미국과 함께 'G2(주요2개국)' 반열에 올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함.
- 불과 10년 전인 2002년 후진타오(胡錦濤) 현 국가주석이 부주석 당시 총서기 등극을 앞두고 그해 4월 방미했을 때도 이 정도의 환대는 아니었음. 지난 2002년 1조4천억 달러이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말 6조5천억 달러(추정치)로 늘어나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외교·안보적으로도 '거인'으로 성장한 중국의 놀라운 변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로 평가됨.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시진핑 부주석과의 면담에서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획기적인 발전은 힘을 키웠고 번영을 낳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이유이기도 함. 미국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안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절실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체감적으로 입증되고 있음.
 -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중국의 책임'도 적절하게 지적했음. 그는 "모든 나라가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동일한 규칙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하며, 중국과도 이를 바탕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미중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중국 위안화 가치 문제나 양국 무역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우회적인 언급으로 풀이됨.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인권의 열망과 권리를 구현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했음. 이는 향후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G2의 협력'이 절실하긴 하지만 양국간 이익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말해줌. 유럽은 물론 미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미국은 불공정한 중국의 환율정책이 자리잡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상한다고 해도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 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음. 아울러 인권문제, 티베트 사태에 대한 외부의 개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음. 특히 시진핑 부주석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그는 13일 워싱턴포스트와 서면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평화, 안정, 발전을 갈구하는 시기에 의도적으로 군사안보 어젠다를 강조하며 전력을 증강하고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역내 국가 대부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시 부주석은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 "양국은 상호 존중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음. 미국과의 협력이 얼마나 깊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전제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됨.



● 시진핑 "美, 中 핵심이익 존중하라"(2/15)

- 미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대만과 티베트 문제 등 자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 매체들이 15일 보도했음. 시 부주석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회담에서 "대만, 티베트 등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이 있다"며 "미국이 이 문제를 적절히 다뤄 중미 관계가 손상되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시 부주석은 "상대방의 전략적 의도와 발전 방식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서로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만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보장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참을 수 없는 한계선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시 부주석은 "중미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며 "쌍방은 믿음을 갖고 공통 이익을 우선해 갈등이 양국 관계의 전체적 틀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의 40주년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세월 양국은 '협력을 하면 서로 이익을 얻고 갈등하면 상처를 얻는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음.
- 시 부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도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시 부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관한 문제로서 중미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미 관계의 큰 틀을 지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음. 시 부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문제 등과 관련해 '동일한 규칙에 따른 협력을 원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평등과 상호 이익의 원칙을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 방식이 아닌 대화를 통해 경제·무역 마찰을 처리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음.
- 중국 언론 매체들은 시 부주석의 발언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인권, 무역 불균형, 시리아 문제 등에서 중국을 비판한 내용은 거의 소개하지 않았음. 대신 중국 언론들은 "미국은 중국의 평화적 발전을 환영한다. 강대하고 번영하는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번영에도 유리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중국 역제는 미국의 정책이 아니며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 등을 부각해 전했다.

● 中구매단, 美상품 271억 달러 매입 계획(2/15)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의 방미에 동행한 중국투자무역방문단과 6개 분과단은 총 271억 달러(약 40조원)어치의 미국 상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중국 측이 밝혔음. 시 부주석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 상무부의 가오후청(高虎城) 부부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이러한 구매 계획을 공개했다고 중국신문사(中國



新聞社)가 보도했음. 중국의 이번 투자무역방문단은 300개 기업의 500여명의 기업가로 구성됐으며, 미국 상품 구매와 함께 워싱턴 등 미국 11개 지역에서 투자·무역 상담, 투자 약정서 체결 등 70여개 항목의 경제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가오 부부장은 덧붙였다. 투자무역방문단이 구입할 예정인 미국 상품은 반도체, 전자기기, 기계설비, 농산품 등 중국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하거나 시장 수요가 많은 제품이라고 가오 부부장은 전했다.

- 가오 부부장은 중국이 역사적으로 무역흑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심각하게 추구한 적은 없다면서 국내 시장 수요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입을 늘려 중미간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작년 연초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때 보잉 항공기 200대 등 총 450억 달러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음.

● <시진핑, 美 정계·재계에 적극 해명·설득>(2/16)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부주석은 방미 사흘째인 15일(현지시간)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적극 해명하거나 설득하는 데 주력했음. 시 부주석은 특히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 중국의 협력방안과 관련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음. 미 상원 원내 대표인 해리 레이드를 만났을 때는 악수를 나눈 뒤 의례적인 덕담조차 나누지 않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기도 했음.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대변인을 비롯한 다른 정치인도 면담했음. 미국 인사들은 중국의 불공정교역 관행, 위안화 저평가문제, 산업 스파이와 기술이전 강요, 급속한 군사 현대화, 반체제 인사 처우문제, 시리아 사태에 대한 입장 등에 관심을 보였음.
- 앞서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향해 시 부주석을 초청한 것은 "중국에 대한 위험한 인정행위"라고 비난할 정도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음.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책임있는 국가들은 인권에 몽매한 중국에 맞서야 한다"며 "특히 2009년부터 고초를 겪고 있는 인권변호사 가오즈성의 석방을 요구해야 하며, 전략적 동맹관계와 군사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시 부주석은 미 의회 정치인 면담 후에 가진 경제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는 "두 나라가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예봉을 피했음. 그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중미관계는 중단되거나 역류해서는 안된다"며 "21세기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고 오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며 "주요한 우려 사항이나 핵심 이해관계에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 부주석은 중국의 통화정책 등과 같은 '결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서



습없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음. 그는 불공정교역에 대한 지적에 대해 "중국은 이미 통화개혁에 나섰고 미국의 중국 수출은 지난해 1천억 달러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의 전체 무역흑자를 상당히 감소시켰다"며 "중국은 미국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시장이 됐다"고 덧붙였음.

● 美 DIA "中, 對항모 미사일 배치 준비"(2/17)

- 로널드 버저스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1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對)함정 탄도미사일(ASBM) DF-21D 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은 이미 수많은 재래식 무기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버저스의 이런 발언은 2010년 12월 로버트 월러드 미 태평양군 사령관이 일본 아사히 신문에 중국이 DF-21에 대한 '초보적인 운용능력'을 갖췄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졌음. 미 국방부도 지난해 8월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대함정 탄도미사일 운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음. 특히 DF-21D는 1천500km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서태평양에서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형 선박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방어체제가 미치는 어느 곳에 서나 발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또한 중국은 대형 수송함정에서 목표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장치들도 갖춰 공중 이외 장소에서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레슬리 헬라이드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이메일 교환을 통해 전하기도 했음. 그는 "앞으로 수년간 중국은 DF-21D를 포함한 첨단시스템들을 개선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中시진핑, 4박5일 방미 마무리...복합적 평가>(2/19)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방문을 끝으로 4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아일랜드로 향했음. 오는 10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될 것이 확실한 시 부주석을 위해 미국은 사실상 국가정상급에 준하는 대접을 했음. 덩샤오핑(鄧小平)이 선구자적 안목으로 개혁·개방을 시작한지 한세대 만에 미국과 함께 'G2(주요2개국)' 반열에 오른 중국의 힘을 오롯이 보여줬다는 평가임. 로스앤젤레스 항구를 찾은 시 부주석에게 비아라이고사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LA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품의 60% 가량이 중국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오늘날 세계 최강 미국에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음.
-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미래권력'인 시 부주석을 향해 경제·무역 문제는 물론 인권과 외교안보적 현안을 놓고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음. 엄연히 중국과 국가이익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했음. 이는 곧 향후 국제질서에서 'G2의 신경전'이 본격화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결론



- 적으로 시 부주석의 미국 방문은 복합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일단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은 역사적 맥락에서 큰 조명을 받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과의 만남이나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과 덩샤오핑(鄧小平)의 회담과 같은 의미까지 부여하고 있음. 특히 국제사회에서 'G2'로 통하는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가 세계의 '2013체제'를 이끌지는 '서약'을 하는 장면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음. 로스앤젤레스를 찾은 시진핑 부주석이 NBA농구를 관람하는 장면도 덩샤오핑이 중국의 권력을 잡은 직후인 1979년 미국을 방문해 텍사스의 로데오 경기를 방문하던 모습을 연상시킨. 또 27년 전 허베이성 정딩(正定)현에서 당 서기로 일할 당시 처음 방문했던 아이오와주를 다시 찾아 마을 주민들과 추억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시진핑은 '친근한 정치인'의 이미지도 과시했음.
 - 여전히 중국 국가주석으로 후진타오(胡錦濤)가 존재하고 있지만 미국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거침없는 행보를 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의 권력위상이 확고함을 보여 준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임. 오히려 10년 전 차기 지도자로 미국을 방문했던 후진타오가 시종 절제된 행보를 한 것과 비교되고 있음. 시 부주석도 "나의 미국 방문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자평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함.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7일 "그가 미국 국민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했다"면서 "방문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두 나라 국민들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게다가 그는 무역불균형이나 인권 등 매우 민감한 현안에 대해 미국 측의 예봉을 피해가는 노련함도 보여줬음.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자"(逢山開路 遇水搭橋)거나 "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감히 묻는다면, 길은 발아래에 있네"(敢問路在何方, 路在脚下)는 등 은유적 표현 속에 미국에 휘둘리지 않는 중국의 지도자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줬음.
 - 중국은 시진핑의 방미에 맞춰 미국 아이오와에서 43억 달러 규모의 콩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3억3천만 달러 규모의 상하이 '오리엔탈 드림웍스' 건립 계획을 발표해 '중국의 힘'을 새삼 확인시켰음. 미국도 시진핑의 방미를 적극 활용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시진핑을 앞에 두고 "모든 나라가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동일한 규칙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하며, 중국과도 이를 바탕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미중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중국 위안화 가치문제나 양국 무역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음. 시진핑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바이든 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미중 관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장애물'이 있음을 상기시켰음.
 - 일부에서는 향후 중국의 10년을 책임질 시진핑과의 만남을 부각시킨 '오바마의 계산'을 거론함. 다시 말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할 경우 중국의 시진핑과 함께 국제질서를 주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심어줬다는 것임. 이제 관심은 향후 미국



과 중국의 움직임임. 시진핑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과정에서 "양국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어느덧 국제질서는 미중 양국이 어떤 '파트너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됐다.

마. 미·일 관계

● 日 "오키나와 美해병 이과쿠니 이전 고려 안 해"(2/13)

-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沖繩) 미군 해병대 일부를 아마구치(山口)현으로 옮길 수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음. 13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에서 니이 세키나리(二井關成) 아마구치현 지사와 후쿠다 요시히코(福田良彦) 이과쿠니 시장을 만나 "(미 해병대의 이과쿠니시) 추가적인 이전을 부탁할 일은 없다"며 "안심해도 좋다"고 밝혔음. 다나가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도 "(미 해병대의 이과쿠니 추가 이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위성의 결론"이라고 말했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천500명을 이과쿠니에) 이전한다는 논의는 미·일간에 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음.
- 앞서 미국 측은 2006년 미·일 합의로 괌으로 옮기기로 한 미 해병대 8천 명 중 약 1천500명을 이과쿠니에 이전·배치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쿠니 기지는 2006년 미·일 합의에 따라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厚木) 기지의 항모 함재기 이전 등이 계획된 상태여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 아마구치현은 강력히 반발했음. 교도통신은 겐바 외상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본이 미 해병대의 이과쿠니 이전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고, 미국 측이 지난 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양국 협의에서 "이과쿠니 이전이 어렵다면 1천500명은 오키나와에 남을 것"이라고 발언한 만큼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 "美, 해병 괌 이전비 日부담 삭감 없다"(2/17)

- 미국의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오키나와(沖繩)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관련, 일본의 경비 부담이 애초 합의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17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패네타 국방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 규모가 축소돼도 일본 측의 부담금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이는 미 해병대의 이전 규모가 애초 8천명에서 4천700명으로 감소하면서 부담 감축을 기대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과 다른 것임.
- 패네타 장관은 "일본 정부는 (해병대 이전)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전 경비의 감축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음. 하지만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양국 간 협의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경비 부담과 관련해 어떤 약속도 한 바가 없다"고 패네타 장관의 발언을 일축했음.



-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06년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가운데 8천 명을 kapsam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이전 경비로 일본이 61억 달러, 미국이 42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음.

바. 미·러 관계

● <푸틴 대선 운동의 중심은 반미>(2/18)

- 반미 발언이 러시아대통령 선거전에 나선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선거 구호처럼 자리 잡고 있음. 야당 후보들을 미국의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신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까지 전에 없던 강도로 공격하는 푸틴 총리의 태도는 냉전 시대의 반미 자세를 연상시킬 정도임. 모스크바 소재 연구 기관인 전략평가연구소의 세르게이 오즈노비슈체프 소장은 "현재 (푸틴의) 선거전략은 반미주의로 장식됐다"고 평가했음.
- 선거일이 다가오고 푸틴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동력을 얻어가자 국영 TV에 나오는 반미 발언의 수위도 높아짐. 국영 TV 1채널은 신임 마이클 맥폴 미국 대사가 모스크바로 부임한 직후인 지난 1월 중순 그를 "민주주의 전파의 전문가로 혁명을 조직하기 위해 러시아에 왔다"고 묘사한 프로그램을 내보낸 데 이어 최근에는 이보다 더 나아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송했음. 이 다큐에서 푸틴은 미국이 러시아를 복속시키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파트너들은 우방이 아니라 가신을 원하고 있다"는 푸틴의 발언을 내보냈음.
- 푸틴의 이런 반미발언들은 16년에 걸친 푸틴의 옛 소련 비밀경찰(KGB) 경력에 뿌리를 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이념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함. 푸틴은 공직 사회의 부패 및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와 관련해 갈수록 커지는 국민의 좌절감과 분노를 외부의 적에게 투사시키도록 유도한다는 것임. 정치분석가인 드미트리 오레슈킨은 "우리(러시아)가 적에 둘러싸여 빈곤하다는 옛소련 시절의 주장을 푸틴이 되살린다"고 지적했음. 국익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미국을 공격하는 푸틴의 전략은 3월4일 치르는 대선에서 도움은 되겠지만 대미 관계에는 손상을 입힐 수 있음.
- 푸틴의 반미 발언은 그의 핵심 지지층인 블루 칼러 노동자와 농민, 공무원들에게 잘 먹혀들. 이들 중에는 국영 방송의 미국 비판이 몇 년째 계속되면서 미국의 의도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음. 또 다른 정치분석가인 알렉산더 코노바로프는 "사람들이 TV로 세뇌됐으며 많은 사람이 미국의 침략적 자세를 정말 그런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핵심은 "그(푸틴)가 미국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러나 푸틴은 미국과의 대결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음. 러시아 대통령궁에 자문하는 미국·캐나다연구소의 세르게이 로고프 소장은 "새로 선출될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의 대치로 임기를 시작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대해서도 양국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오즈노비 슈체프소장은 미 재무부 공채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나 러시아 상층부가 미국에 보유하는 자산 등 모스크바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미국에 대한 지나친 도전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러시아정부가 서방의 투자와 기술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음. 그는 "현대화의 필요성이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 서유럽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있다"면서 "러시아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모험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사. 기 타

● <미리 보는 핵안보정상회의 의제>(2/13)

- 13일 오후 서울 국도호텔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중 성균관대 교수) 주최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핵안보정상회의' 보고서 발간 기념 콘퍼런스가 열렸음. 보고서는 오는 3월26~27일 개최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해 주요국의 핵안보 정책 분석과 한국의 바람직한 핵안보 정책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을 담았음.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의 기본 주제였던 핵테러 대응, 핵물질 및 핵시설 보호, 핵물질 불법거래 등을 충실히 다루면서도 논의의 지평을 확대해 핵안보 규범을 보다 견고하게 짜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음.
- 특히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연계가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음. 전진호 광운대 국제협력학부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의 중심 의제였던 '핵물질 안보'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핵안보'로 의제를 확대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정상회의 결과문서인 '서울 코뮈니케'에 원자력 안전 관련 국제협력과 지역협력 방안을 포함시킨다면 이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또 이번 회의를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음.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은 "핵안보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한반도가 핵 비확산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상징으로 부각된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도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격상 북핵문제가 핵심 의제가 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핵기술 역시 외부로 이전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시설도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이 모두 참가하는 만큼 별도의 양자, 다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국제 NGO "후텐마기지 이전은 인권 침해"(2/13)

-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반차별국제운동' 등이 오키나와현에 있는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현 내 이전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의하면 도쿄에 본부가 있는 반차별국제운동 등 3개 NGO 단체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내 이전이 인권 침해라면서 미국과 일본 정부에 이전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날부터 3월 초까지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준수 상황을 감시하는 회의를 시작했음. 일본과 미국은 이번 회기의 감시대상이 아니지만 긴급조치를 발동해 후텐마 이전과 관련 시정을 권고할 가능성도 있음.
- NGO 단체들은 오키나와가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데다, 미군 기지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음. 또 일본 국토 면적의 0.6%인 오키나와현에 주일 미군 기지의 74%가 집중돼 소음과 환경 파괴 등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는 인종차별철폐조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0년 일본을 심사 대상으로 회의를 연 바 있으며, 당시 오키나와의 기지 집중에 우려를 표명했었음.

● 패네타 "태평양 지역에 美해병대 순환 주둔"(2/15)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해병대를 추가로 순환 주둔시킴으로써 아시아에 대한 미군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패네타 장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미군)주둔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음. 그는 "우리는 이 지역에 미군 주둔을 유지할 것이며, 이미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 곳곳에서 해병 병력을 추가로 순환 주둔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이미 (해병대) 순환 주둔을 위해 호주와는 합의를 했으며, 필리핀과도 비슷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에 앞서 일본 언론은 미국과 일본이 애초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약 8천 명과 가족을 껴서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약 4천500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를 호주와 필리핀의 미군 기지로 순회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음.
- 패네타 장관은 예산 감축 상황 속에서도 미 해군이 항공모함 11척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주둔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그는 "(유사시) 그 지역에 (미군 전력의) 신속한 전개를 위해서는 항공모함만 한 것이 없다"면서 "충분한 전진 배치 전력을 갖기 위해 해군의 항모 11척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음. 그는 또 "우리는 태평양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공군기지와 전진 배치된 항공전력도 (아태지역에) 갖고 있다"면서 아태지역에 충분한 미군 전력을 유지할 방침임을 확인했음.



● 中 원자바오 "티베트 승려 분신 선동 말라"(2/15)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4일 티베트 승려 분신을 선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음. 원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헤르만 반롬퓌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티베트 관련 질문에 그 같이 답했음. 그는 "소수의 티베트 승려를 선동해 격렬한 행동을 유도하는 행위는 시짱(西藏·티베트)의 안정을 해칠뿐더러 시짱의 발전과 시짱 인민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인심을 얻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중국 정부는 티베트 자치구의 생태적 환경과 전통적인 문화를 보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티베트인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그러면서 중국은 티베트 자치구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오랫동안 추진해왔으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그는 아울러 "티베트는 떼어낼 수 없는 중국의 영토이고 티베트인은 중국이라는 대가족의 구성원이자 형제"라고 역설했음.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쓰촨(四川)성 아바(阿<土+霸>)현에서 10대 승려가 분신을 시도했는가 하면 지난 9일에는 간쑤 티베트족 자치주 루회현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티베트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中, 국제관계보다 국익 우선시해야"(2/15)

- 중국은 국제관계보다 자국 이익을 우위에 뒀야 하며 국익을 희생시켜가며 서방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스가 15일자 사설에서 지적했음. 신문은 "중국은 무엇이 '좋은' 관계인지 사고를 조정해야 한다. 그것이 중미 관계 혹은 중-유럽 관계이든 간에 그것이 중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이라면 더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중국에게 있어 미국과 유럽은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 자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이 오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교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해 온 글로벌 타임스의 이 같은 지적은 차기 지도자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의 방미에 즈음하여 시리아 사태, 중국 국내 인권문제 등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4월 中 보아오포럼서 양안 고위회담 성사될 듯(2/15)

- 우둔이(吳敦義) 대만 부총통 당선자가 4월 1~3일 중국 하이난다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의 다보스포럼' 격인 보아오포럼에 참석함. 우 부총통 당선자는 지난주 포럼 참석을 위한 신청 절차를 마쳤다고 자유시보가 15일 보도했음. 그는 대만의 양안공동시장기금회 고문 자격으로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음.



- 이번 보아오 포럼에는 중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대만, 중국 양안 차기 '넘버 2' 지도자 간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임. 2008년 보아오 포럼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샤오완창(蕭萬長) 당시 대만 부총통 당선자가 회담하고 양안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돌파구를 마련했음. 야당인 민진당은 "샤오완창 부총통에 이어 우둔이 당선자까지 중국 주최 포럼에 참가하면서 고위 정치인이 중국에 미리 인사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음.
- 중국은 지난 2002년 아시아권 국가, 기업, 민간단체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취지로 보아오 포럼을 창설했음.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빚대어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음. 한편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는 상반기 중 제8차 양안 회담을 열고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임.

● <대만 교수가 꼽는 시진핑 장점 7가지>(2/16)

- 대만의 중국문제 전문가가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역대 중국 지도자들보다 뛰어난 점들에 대해 언급했음. 대만 국방부 부부장(차관)을 지낸 린중핀(林中斌) 탐강대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 부주석이 특색 없는 인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런 분석을 소개했다고 중앙통신사(CNA)가 16일 전했다.
- 린 교수는 구체적으로 대만과 미국 문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 중국 군부와의 유기적 관계, 부친의 정치적 후광, 중국 최초의 박사 학위 지도자, 미모의 아내, 종교에 대한 이해 등을 꼽았음. 그는 "불교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시 부주석이 권력을 잡게 되면 시한폭탄과 같은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문제를 종교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시진핑의 부친인 시중선(習仲勳)이 공산당 내에서 명망 있는 인사라는 점은 그의 집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진핑은 권력 기반이 공고해지면 부친의 피를 이어받아 정치적 개혁과 부패 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음.
- 린 교수는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시 부주석이 대만과 접경한 푸젠(福建)성의 당서기를 역임하면서 경제교류를 경험했고 독립 성향의 대만 야당인 민진당과의 대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안 정책이 과거와 비교해 유연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음.
- 린 교수는 중·미 관계와 관련해선 "시진핑이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는 등 미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중국이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보이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음.

● UNHCR, 中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우려 표명(2/16)

-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가 북송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탈



북자들에게 대해 안전 보장이 확인될 때까지 강제 송환을 유보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음. 최근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 24명이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들 가운데 10명은 북한인권단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음.

- UNHCR은 17일 "UNHCR은 북중 접경지대에 접근할 수 없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당국에 관심을 촉구해왔다"고 전제한 뒤 "이번 건에 대해서는 UNHCR은 중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탈북자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가 적절히 마련될 때까지 강제로 송환돼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우선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음. UNHCR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탈북자가 송환됐을 때 처벌 등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고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송환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UNHCR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기독교사회책임 등 국내 10개 북한인권단체는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중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음.

● 대만, '中 공격' 대비 미사일시스템 재편(2/17)

- 대만이 유사시 중국의 공격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관련 시스템의 재편에 나섰다. 대만 국방부는 중·장거리 방공 미사일 부대를 하나의 지휘 체계로 묶어 국방부가 직접 통제하는 형태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7일 전했다. 이는 보고 및 지휘체계를 간소화해 적의 공격 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조치임. 이에 따라 패트리엇, 텐궁(天弓), 호크 등 대만의 주력 미사일 부대가 일률적인 지휘체계로 통합 편성됨.
- 대만은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3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자체 개발해 지난해 시험 발사한 '승평(雄風) 2E' 순항미사일의 일선 부대 배치를 늘릴 계획임. 승평 2E는 사거리가 600~800km에 달해 상하이(上海), 홍콩, 선전(深천<土+川>) 등 중국 동남부 주요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음.
- 대만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유도 미사일과 전투기 등의 포착 및 요격 능력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단거리 방공시스템 재정비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텐우 세븐(天武 7)'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중국의 순항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공격, 유인 전투기 공격 등에 대한 방어 능력이 높아짐. 대만 당국자는 "양안 관계가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강화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최근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음.

● 대만, 진먼다오 부속섬 추가 개방 검토(2/17)

- 대만 당국이 중국과 접경 지역인 진먼다오(金門島)의 부속 섬 일부를 추



가로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대만 국방부는 진먼다오 인근 다단다오(大膽島)와 열단다오(二膽島) 두 곳을 관광용으로 개방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를 논의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17일 전했다. 이들 섬은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과는 4km 떨어진 곳에 있음. 1940년대 후반 이후 대만군 수비대가 주둔해온 지역임.

- 진먼다오가 속한 지자체인 진먼현은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의 하나로 이 같은 개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음. 진먼다오는 1958년 8월 중국이 대규모 포격을 가하면서 양안이 대치하는 최전방이었지만 양안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평화의 섬으로 탈바꿈했음.

● "日, 5월 '한중일 FTA 협상 개시 합의' 원해"(2/19)

- 일본이 5월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삼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내길 원하고 있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까지 FTA 체결을 위한 사전 단계로 삼국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5월 삼국 정상회담에서는 한·중·일이 선두에 서서 아시아 자유무역권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이끌어낸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중·일 FTA를 시작으로 아시아 자유무역권을 구축한다는 것임.
- 삼국 정상회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여서 6자회담 재개 여부도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5월 정상회담에 앞서 4월초에는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림.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